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고찰

- 상대 높임법 형태와 등급체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맹훈

2018년 2월

#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고찰

- 상대 높임법 형태와 등급체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배 영 환

고 맹 훈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고맹훈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 목 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	2
1.3. 연구사에 대한 검토 .....	6
1.3.1. 형태소 분석의 문제 .....	7
1.3.2.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에 대한 검토 .....	9
제2장.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 실현 양상 .....	12
2.1.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으)우-’와 ‘-수-’ .....	12
2.2.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읍-’과 ‘-ㅂ-’ .....	19
2.3. 높임 보조사의 ‘-마썸, -양, -예’ .....	24
2.4. 의문형 종결어미와 높임의 ‘-ㅍ’ .....	29
제3장.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 설정 .....	36
3.1. 상대 높임 등급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보완점 .....	36
3.2. 상대 높임 등급 체계 재설정 .....	45
제4장. 높임 등급과 문장 서법에 따른 어미 양상 .....	50
4.1. 홑서체의 어미 양상 .....	50
4.1.1. 평서형 어미 .....	50
4.1.2. 의문형 어미 .....	54
4.1.3. 명령형 어미 .....	56
4.1.4. 청유형 어미 .....	59

4.2. 허라체의 어미 양상 .....	63
4.2.1. 평서형 어미 .....	64
4.2.2. 의문형 어미 .....	68
4.2.3. 명령형 어미 .....	74
4.2.4. 청유형 어미 .....	75
4.3. 허여체의 어미 양상 .....	77
4.3.1. 평서형 어미 .....	77
4.3.2. 의문형 어미 .....	81
4.3.3. 명령형 어미 .....	87
4.3.4. 청유형 어미 .....	88
4.4. 허여마춤체의 어미 양상 .....	89
4.4.1. 평서형 어미 .....	90
4.4.2. 의문형 어미 .....	91
4.4.3. 명령형 어미 .....	92
4.4.4. 청유형 어미 .....	92
제5장. 결론 .....	93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

# 제1장. 서론

## 1.1. 연구 목적

인간은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며 다양한 인간관계에 얽혀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자를 전제로 발화하게 된다. 화자는 나이, 성별, 신분, 혈연, 계층 등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화함으로써 청자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게 된다. 즉, 화자는 이러한 여러 관계를 감안하여 준비의도를 머금고 발화하기 때문에 화자의 발화 상에는 언제나 높임 표현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국어에서는 ‘상대높임’이라 하며 다른 문법 형태와 마찬가지로 상대높임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화하며 지역을 달리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표현은 다른 여타의 방언과는 다른 특이성으로 인해 여러 언어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기울인 노력만큼 제주방언의 보편 타당한 언어 체계를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싶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주방언의 본래 모습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방언의 토박이 연구자가 아닌 경우에 제주방언이 지니는 특이성으로 인해 언어적 직관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의 연구자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제주 방언의 본래 모습을 구현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제주 방언 연구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방언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제주 방언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어의 보편적인 언어 이론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소홀한 나머지 제주 방언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 방언만이 지니는 특수한 측면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제주 방언이 한국어의 하위 언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 방언이 한국어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

방언의 본질적 모습을 밝혀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제주 토박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발화 장면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상대높임 표현의 특수한 측면과 한국어의 하위 언어로서 지니는 보편적 측면을 동시에 규명해 가려고 한다.

## 1.2. 연구 방법

기존의 연구가 제주 방언이 지니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제주 방언이 한국어의 하위 언어로서 지니는 보편적 측면을 간과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방언의 본질적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세국어의 어떤 변모 과정을 거치며 제주 방언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제주 방언에 쓰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으)우’와 ‘-수-’가 중세국어의 높임법 변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나타난 형태인지 그 연원을 밝힌다면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특징 및 본질적 모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세국어에 사용되었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 -줍-, -습-’이 17C에 이르러 그것의 기능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울러 ‘△, ○, 붕, ·’ 음의 소실과 음가의 변화에 따라 ‘-습-, -줍-, -습-’의 형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현재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와 ‘-우-’가 이런 과정을 거쳐 생겨난 형태임을 밝힘으로써 제주 방언에 쓰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와 ‘-우-’의 쓰임과 특징적 측면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소들이 어떤 음운론적 과정이 투영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고찰함으로써 제주 방언에 쓰이는 문법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제주 방언의 호라체에 쓰이는 의문형 종결어미 ‘-디아, -티아, -다, -

타’는 여러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 문법 형태소이다. 즉 의문형 종결어미 ‘-디아’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 된소리 [-띠아]로 발음되고 된소리로 발음된 [-띠아]는 격음화 현상을 거쳐 [-티아]로 나타나게 되며 이 ‘-디아, -티아’는 다시 단모음 축약 현상으로 ‘-다, -타’로 형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을 살핌으로써 제주 방언의 흐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디아’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소의 본래 모습을 밝혀내게 될 것이다.

셋째, 문장 종결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에 따른 어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어미가 문법적 자질을 지니고 있으면 최대한도로 형태소를 분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치와 결합<sup>1)</sup>의 원리가 적용된다. 가령 ‘막았저’와 ‘살았저’에서 공통된 의미를 지닌 ‘-았저’를 제외하면 두 단어의 의미는 ‘막-’과 ‘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막았저’에서 ‘막-’을 ‘살-’로 대치시키면 ‘살았저’가 되고 반대로 ‘살았저’에서 ‘살-’을 ‘막-’으로 대치시키면 ‘막았저’가 되는데 이때 ‘막-’과 ‘살-’은 대치 가능한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막저’와 ‘살저’ 사이에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결합되면서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즉 ‘막저, 살저’와 ‘막았저, 살았저’를 비교해 보면 ‘-았-’이 ‘막저, 살저’에 더해지면서 의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 방법이 결합의 원리이며 이때 ‘-았-’은 ‘막저, 살저’에 결합 가능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합 관계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형태소 분석에 적용했을 경우에 문법 형태소의 의미 자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다’와 ‘살았다’를 비교해 보면 ‘살다’에 ‘-았-’이 결합되면서 현재 진행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살았다’는 ‘살-, -았-, -다’와 같이 각각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살았다’와 ‘살았수다’를 비교해 보면 ‘살았다’는 [-존대]자질을 지

1) 남기삼·고영근(2016:33~36)에서 대치란 같은 성질을 가진 다른 말이 갈아들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종류의 말은 계열체를 형성하므로 계열관계에 있다고 하며, 결합이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결합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때 서로 결합될 수 있는 말들의 관계를 흔히 통합관계라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르다’가 ‘푸르-’와 ‘-다’로 갈라지는 것은 ‘푸르-’의 자리에 ‘호리-’가 올 수 있고 ‘-다’자리에는 ‘-고, -니’ 등의 말이 대신할 수 있는데 이는 계열관계에 있는 것이며 ‘푸르-’와 ‘-다’ 사이에는 ‘-겠-’과 같은 말이 삽입될 수 있는데 이는 통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닌 반면에 ‘살암수다’는 [+존대]자질을 지닌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의 통합 여부에 따라 [-존대]와 [+존대]의 의미 차이를 지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 방법인 대치와 결합의 원리를 적용하면 상대높임의 의미 자질을 지닌 ‘-수-’를 하나의 형태소로 쪼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살다’에 ‘-암-’을 결합하여 ‘살암다’는 가능하지만 ‘-수-’를 결합하면 \*‘살수다’가 되어 통합 관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암수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살-, -암-, -수다’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수-’의 문법적 자질을 밝히는 데 한계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로써 그것이 문법적 의미 자질을 지녔을 경우에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도로 형태소를 분석하려는 태도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어미의 문법적 자질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형태소를 최대한도로 쪼개어 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주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고 제2장에서는 제주 방언에 자주 사용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으)우-, -수-’와 ‘-읍-, -ㅂ-’가 중세국어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인 -습(습)-의 변모 과정에서 생겨난 형태임을 제시하고,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으)우-’와 ‘-수-’가 그 앞에 실현되는 형태소의 음절 말 소리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혹은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우-’와 ‘-수-’가 선택되어 쓰이는 음운론적 이형태임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수-’가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법으로 사용되던 ‘-습-’의 변모 과정을 거쳐 이뤄진 형태임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수-’를 ‘ㅅ+-우-’로 분석하여 ‘-수-’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우-’만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보자는 견해의 문제점을 살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ㅂ-’와 비교하여 ‘-우-’와 ‘-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성이 따르는 이유를 제시하고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각각의 특징을 서술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상대높임의 의미를 드러내는 ‘-마쑈, -양, -예’의 특징 및 기능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임 보조사로 취급한 것에 대한 문제

점을 밝혀 ‘-마씀’은 ‘-양’과 ‘-예’와 다르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규명해 갈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어미인 ‘-가’와 ‘-까’, ‘-과’와 ‘-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가’와 ‘-까’의 연원을 추정해 봄으로써 이것들과 구별되는 ‘-꽈’의 특징을 밝혀내어 ‘-꽈’를 상대높임의 어미로 새롭게 처리해야 함을 규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서술하고 여기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밝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식성]자질을 활용하여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재설정할 것이다. 즉, [격식성]자질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다시 격식체는 [존대]자질 여부에 따라 홑서체와 헛라체로, 비격식체는 헛여마씀체와 헛여체로 나뉘어야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의 분류 기준이 되는 [존대]자질은 ‘-읍-/~ㅂ-, ~수-/~우-’와 ‘-마씀’의 결합여부에 따라 [+존대]와 [-존대]로 구별할 수 있음을 규명할 것이며, [격식성]자질은 표준어에서 [+존대][-격식성]자질을 지닌 높임 보조사 ‘요’와 제주 방언에 쓰이는 ‘마씀’의 문법적 기능과 특징이 일치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격식성]자질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는 [+격식성]자질을 지닌 홑서체, 헛라체와 [-격식성]자질을 지닌 헛여마씀체, 헛여체의 4등급 체계로 나누어야 함을 밝힐 것이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분류한 상대높임 등급체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어미 활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형태 음소적 원리를 바탕으로 어미 형태소 각각을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문법적 성질과 특징을 밝혀 낼 것이다. 또한 음운의 변동으로 인해 본래의 형태가 바뀐 형태소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어미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해 갈 것이다.

### 1.3. 연구사에 대한 검토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현평효(1977, 1985, 1991)와 이송녕(1978)을 필두로 하여 강영봉(2001, 2014), 강정희(2005), 박용후(1988), 고영진(2002), 한동완(2002), 김지홍(2014)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현평효(1977)은 제주 방언의 존대법 체계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 시에 고려해야 할 문법적 성질이나 음운의 변동 과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분류하는 데 객관적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ㅎ여체와 ㅎ라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평효(1977, 1985)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대높임법 체계에 대한 특징적인 점을 요약하면 첫째,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에 ‘-우-’가 있으며, 이것은 평서법, 의문법에서만 나타나고 중세국어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ㄴ-’ 형태는 중세국어에서 객체존대를 표시하던 ‘-습-’이 17C초 상대존대의 기능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논의하였다. 셋째, 제주 방언에서 상대높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ㅎ여체, ㅎ라체’ 어미 및 체언, 부사 등에 ‘-마씀’을 덧붙여 청자를 존대하는 형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앞서 살핀 상대높임법 형태소 ‘-우-, -ㄴ-, -마씀’을 바탕으로 상대높임 등급 체계를 흡서체, ㅎ여체, ㅎ라체의 3등급 체계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현평효(1977)에서 간과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면, 우선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우-’의 형태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분석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흡서체, ㅎ여체, ㅎ라체’의 3등급 체계로 나누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송녕(1978)은 현평효(1977)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견해를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상대높임 등급체계에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삽입된 형태인 ‘흡십씨체’를 더 두어 4등급 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평효의 견해와 다

르다. 즉 이송녕(1978)에서는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으로 나누면서 ‘-시-’가 삽입된 것은 육지어의 영향으로 4등급 체계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4등급 체계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영진(2002)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법과 관련하여 주로 형태론적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의 형태로 ‘-읍-/-ㅂ-, -우-/-수-’가 있으며 ‘-읍-’과 ‘-ㅂ-’는 음운론적 이형태로 ‘-우-/-수-’와 다르게 서법상 제약이 없으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읍-/-ㅂ-’와 ‘-우-/-수-’가 중세국어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습-/-습-’의 변모 과정에서 ‘-우-/-수-’와 ‘-읍-/-ㅂ-’가 제주 방언에 쓰이게 되었음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한동완(2002)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해 고영진(2002)와 마찬가지로 방언의 형태론적 입장에서 논의하였는데 등급 결정의 형태 원리를 설정하여 논의한 점이 고영진(2002)와 다르다. 한동완(2002)에서 제주 방언은 ‘-우-’와 ‘-(으)ㅂ-’ 형태를 갖는 어미군들이 상위 등급인 ‘흡쇼체’를 이루고 있으며, ‘-우-’는 ‘-습-’과 ‘-이-’의 결합형에서 역사적으로 발달된 것이므로 청자 경어법 등급 결정의 형태 원리를 적용 받아 등급이 높아진 것이고, ‘-(으)ㅂ-’는 이것이 결합된 ‘-(으)ㅂ네-, -(으)ㅂ데-’ 형식의 ‘-네-, -데-’에서 ‘-이-’에 소급되는 ‘-이-’가 분석되므로 등급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흡서’의 ‘-서’를 중세 국어의 ‘-쇼서’에 전신을 둔 ‘-소서’에서 ‘소’가 탈락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1.3.1. 형태소 분석의 문제

현평효(1977:4~6)에서 ‘-아-/-어-’는 선행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형태이며 ‘-시-’는 존재어 ‘시다’에서 온 것으로 존재·존속을 의미하므로, 이 두 형태소가 결합되어 ‘-아시-/-어시-’는 어떤 동작 행동이 완료되어서 그 완료된 상태가 존속되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형태소로 논의하고 있다.

#### (1) ㄱ. 철수도 지브 가시냐?

(철수도 집에 가 있느냐?)

ㄴ. 예, 지브리 갔수다.

(예, 집에 가 있습니다.)

현평효(1977)은 (1)ㄱ의 ‘가시냐’에서 ‘-시-’는 ‘시다’에서 온 것으로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완료하고서 그 완료된 상태대로 존속되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존속 선어말어미로 분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ㄴ의 ‘갔수다’에서 ‘-수-’도 ‘-스-’와 ‘-우-’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스-’는 ‘-시-’의 이형태로서 존재·존속을 의미하는 형태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1)ㄴ의 ‘갔수다’를 형태소로 분석해보면 가-(용언의 어간)+-았-(과거시제 선어말어미)+-스-(존재·존속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평효(1977)에서 밝히고 있는 존재·존속의 선어말어미 ‘-스-’는 ‘-아 있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완료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의 의미를 ‘-아 있다’와 같이 보조용언을 활용하여 드러내기도 하지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엇-’ 속에 이미 완료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즉 (1)ㄴ의 ‘갔수다’에서 분석해 낸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에는 이미 완료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로 다시 완료상의 의미를 중복하여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갔수다’에서 ‘-수-’를 존재·존속 선어말어미 ‘-스-’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같이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수-’를 형태소 ‘-스-’와 ‘-우-’로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는 형용사 쓰임에서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2)ㄱ. 가이가 질 곱수다.

(\*그 아이가 제일 곱와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곱습니다.)

ㄴ. 가이 지레가 질 족수다.

(\*그 아이의 키가 제일 작아있습니다.)

(그 아이의 키가 제일 작습니다.)

(2)ㄱ의 ‘곱수다’에서 ‘-수-’를 현평효(1977)의 견해와 같이 ‘-ㅅ-+-우-’로 분석하여 표준어로 해석하면 “\*고와있습니다”가 되어,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2)ㄴ의 ‘족수다’도 마찬가지로 “\*작아있습니다”가 되어 표준어 해석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수-’는 형태소 ‘ㅅ’와 ‘-우-’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수-’ 단독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3)이걸랑 나가 먹저.

(이것은 내가 먹겠다.)

현평효(1985)에서는 (3)‘먹저’의 어미 ‘-저’를 화자의 의도, 의욕을 표시하는 ‘-ㅈ-’와 평서평 어미 ‘-어’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ㅈ-’의 본래 형태는 의도법 선어말어미 형태소 ‘-지-’로 보아야 한다. 즉 ‘-지어’가 모음축약 현상으로 ‘-저’가 되고, 이는 다시 경구개음 ‘ㅈ, ㅊ, ㅉ’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을 겪음으로써 ‘-저’가 ‘-저’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용언의 활용형이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주 방언에서도 지+어사→저사[저사], 치+언→천[천]과 같이 흔히 일어나는 것이다.

### 1.3.2. 제주 방언 등급 체계에 대한 검토

상대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 기능으로 주로 어떤 상대높임법 어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달라지며, 격식성 유무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발화 상황에서 쓰이며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어에서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로 분류하여 높임 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설정하고 있

다. 제주 방언에서도 이와 같이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설정하려는 학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분류 체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찾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평효(1977)에서는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를 [+존대]자질을 부여한 흡서체(존대), [-존대]자질을 부여한 흐라체(하대)를 설정하고 흡서체와 흐라체 사이에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흐여체(평대)를 두어 삼항적 대립체계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삼항적 분류 체계는 존대 표지가 분명하지 않은 흐여체(평대)와 흐라체(하대) 중에 어떤 등급이 더 [존대]의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평효의 견해인 3등급 체계를 바탕으로 이승녕(1978)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극존칭 등급을 더 설정하여 4등급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이승녕은 등급 체계를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으로 나누며 극존칭에서 ‘-시-’가 삽입된 것은 육지어의 침투로 나타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삽입하여 ‘흐십씨, ㄹ르십씨, 가십씨’와 같이 청자에 대한 존대의향을 드러내는 발화는 대개 노년층의 토박이 화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공기 관계에 있는 높임 주격조사 ‘께서’가 제주 방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제주 방언에 ‘-시-’를 삽입한 극존칭을 설정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지홍(2014)에서는 명령서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높임 등급을 흡서체, 흐여체, 흐라체로 나눈 현평효(1985)의 3등급 체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를 청자를 높이는 ‘청자 대우’와 청자를 대우하지 않는 ‘평대’로 나누고 다시 ‘청자 대우’를 격식투와 비격식투로 분류하고 ‘평대’를 서법고유 형태와 반말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존대]자질 유무만으로 등급 체계를 논의한 것에서 [격식성]여부를 상대높임 등급 체계의 분류 자질로 설정하여 등급 체계를 논의한 것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시·공간적 대화 장면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등급 체계에 대한 견해보다 더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격식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며 어느 정도의 공식성을 지녀 표현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반면에 비격식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없어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지홍(2014)에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이 쓰이면 격식투로, ‘-수-’가 쓰이면 비격식투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과 ‘-수-’는 중세국어 ‘-습-’이라는 같은 형태소에서 변모 과정을 거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읍-’이 사용된 발화와 ‘-수-’가 사용된 발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읍-’과 ‘-수-’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하여 높임 등급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를 [+존대]와 [+격식성]을 갖춘 흡서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2장.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 실현 양상

지금까지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법 형태로 거론되어 온 것은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으)우-’, ‘-수-’, ‘-읍-’, ‘-ㅁ-’, ‘-마씀’ 등이다.

### 2.1.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으)우-’와 ‘-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으)우-’와 ‘-수-’는 다음과 같이 결합 상 제약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 (4)ㄱ. \*철수가 밥 먹(으)우다. / \*먹수다  
(철수가 밥을 먹습니다.)  
ㄴ. \*철수가 집이 가우다 / \*가수다  
(철수가 집에 갑니다.)

- (5)ㄱ. 영희가 질 곱수다 / \*곱우다  
(영희가 제일 곱습니다.)  
ㄴ. 영희 지레가 질 크우다 / \*크수다  
(영희의 키가 제일 큼니다.)

(4)ㄱ과 ㄴ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다’, ‘가다’ 동사의 어간에 직접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나 ‘-수-’가 결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방언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ㄱ과 ㄴ의 ‘곱다’, ‘크다’와 같은 형용사의 어간에 각각 ‘-수-’와 ‘-우-’가 결합되어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ㄱ의 ‘굽-’은 형용사로 어간의 음절 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가, (5)ㄴ의 ‘크-’는 형용사 어간의 음절 말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가 결합되고 있다.

요컨대 제주방언의 높임선어말어미 ‘-우-’와 ‘-수-’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반드시 형용사 어간에만 올 수 있으며, -우-는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에 결합되고 -수-는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다. 또한 서술격 조사 ‘-이다’ 결합 시에는 ‘-수-’는 결합이 불가능하고 ‘-우-’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6)ㄱ. 이제사 밥 먹음이우다.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ㄴ. \*이제사 밥 먹음이수다.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6)ㄱ의 ‘먹음이우다’는 먹-(용언의 어간)+-음(명사형 전성어미)+-이-(서술격조사)+-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는 동사의 어간에는 결합할 수 없지만 (6)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동사의 어간에 결합된 후 ‘먹-’이 동사의 성질에서 명사의 성질로 바뀌면서 서술격조사 ‘-이(다)’결합이 가능하게 되고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으로 ‘먹음이우다’는 형용사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후 높임선어말어미 -우-의 결합이 자연스러워지게 된 것이다.

반면에 (6)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음이수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로써 서술격조사와 결합될 수 있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는 -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서술격조사 다음에 -수-가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술격조사 ‘-이(다)’의 음절 말 형태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체언이나 체언형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이뤄진 어휘는 형용사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우-’와 ‘-수-’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높임 선어말어미인 ‘-우-’와 ‘-수-’는 ‘-우-’와 ‘-수-’ 바로 앞에 환경이 모음으로 끝났느냐 혹은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ㄱ. 날랑 이제 밥 먹(으)쿠다 / \*먹(으)크수다

(나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ㄴ. 날랑 집이 가쿠다 / \*가크수다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8)ㄱ. 집이 가난 좋(으)쿠다 / \*좋(으)크수다

(집에 가서 좋겠습니다.)

ㄴ. 발이 크난 지레도 크쿠다 / \*크크수다

(발이 커서 키도 크겠습니다.)

(7)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지나 추측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 ‘-(으)크-’<sup>2)</sup>가 쓰이면서 형용사의 어간이나 서술격조사에만 결합된다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의 제약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ㄱ의 ‘먹(으)쿠다’는 먹-(용언의 어간)+-(으)크-(의지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7)ㄴ의 ‘가쿠다’는 가-(용언의 어미)+-크-(의지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각각 분석이 된다. 또한 (8)ㄱ의 ‘좋(으)쿠다’는 좋-(용언의 어간)+-(으)크-(추측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8)ㄴ은 크--+크-(추측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

2) 정승철(2013:177)에서 ‘-으크-/크-’는 주어가 1인칭이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며 주어가 2인칭·3인칭이면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이며 선행하는 어간의 폐음절어미인 ‘-으크-’가 연결되고 개음절어미인 ‘-크-’가 연결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 ‘-(으)크-’는 관형형 어미 ‘-을/르-’와 의존명사 ‘거’가 결합된 명사적 구성 ‘-(으)르 거-’에서 왔다고 보면서, 이러한 형태가 문법화 과정에서 격음화와 ‘어>’의 변화 그리고 관형형어미 ‘르’의 탈락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을 거-’가 격음화 현상으로 ‘-을커-’로 ‘-을커-’는 ‘-을크-’로, 이러 변화 과정을 거친 ‘-을크-’에서 ‘르’탈락이 일어나면서 ‘-으크-’의 형태가 이뤄진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을 거-’가 ‘-을 커-’로 격음화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ㅎ’음이 나타나지 않은 환경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을 거-’가 관형사형 어미 ‘-을’ 다음에 된소리 [을꺼]로 나타나고 이 된소리가 격음화 현상으로 ‘-을 커-’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은 ‘이쪽’을 ‘이착’, ‘저쪽’을 ‘저착’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과 (8)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드러내는 -(으)크-가 결합될 때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떡크수다, \*가크수다, \*좋크수다, \*크크수다와 같이 -수-와 결합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으)크-의 형태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와 결합되지 못하고 '-우-'와 결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ㄱ. 철수가 밥 먹엄수다 / \*먹엄우다

(철수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ㄴ. 철수가 지브 감수다 / \*감우다

(철수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ㄷ. 철수가 공부햏염수다 / \*공부햏염우다

(철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9)ㄱ~ㄷ의 예에서 보듯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는 진행상의 의미를 지니는 -엄-/-암-/-염-<sup>3)</sup>이 쓰이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제약이 해소되어 동사와도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ㄱ의 '먹엄수다'는 먹-(용언의 어간)+-엄-(시상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9)ㄴ의 '감수다'는 가-(용언의 어간)+-암(시상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9)ㄷ의 '햏염수다'는 공부햏(용언의 어간)+-염-(시상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9)ㄱ~ㄷ에 쓰인 '-엄-/-암-/-염-'<sup>4)</sup>은 '떡다'와 '가다'에 붙어 동작이 진행되고

3) '-암-'과 '-염-'은 용언의 어간 끝이 양성모음이면 '-암-'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염-'이 선택되어 쓰이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며, '-염-'은 '-햏다'접사가 결합될 때만 나타나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4) 정승철(2013:163~165)에서는 -암-/-염-의 형태는 '-았-/-었-'으로 보고 있다. 막암찌(막-았-저), 막암쭈(막-았-주), 막암수다(막-았-수다), 막암쭈과(막-았-수과)에서 '-저, -주, -수다, -수과'가 '-았-'과 결합하여 '-찌, -쭈, -쭈다, -쭈과'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과 열인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거의 예외없이 일어나는 강력한 음운현상이다. 따라서 -았-다 음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은 예외없이 된소리로 발음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ㄴ 밥 먹었다'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를 든 '먹엄수다', '막암쭈과'도 화자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먹엄수다'와 '막암수과'와 같이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많다. 따라서 여

있음을 표시한다. 여기에 ‘-수-’와 결합되면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의도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와 같이 청자에 대한 높임의 의도를 부여하는 -우-로 사용된 ‘\*먹었우다, \*감우다, \*공부했었우다’는 자연스럽지 않음을 (9)ㄱ~ㄷ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시상 선어말어미 ‘-았-/-었-/-였-’이 결합 시에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 중에서 ‘-수-’가 선택됨을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시상 선어말어미 형태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가 아닌 -수-가 선택되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ㄱ. 철수는 밥 먹었수다 / \*먹었우다

(철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ㄴ. 철수가 집이 갔수다 / \*갔우다

(철수가 집에 갔습니다.)

ㄷ. 철수가 공부했었수다 / \*공부했었우다

(철수가 공부하였습니다.)

(10)ㄱ의 먹었수다는 먹-(용언의 어간)+-었-(과거시제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10)ㄴ의 ‘갔수다’는 가-(용언의 어간)+-았-(과거시제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10)ㄷ의 ‘공부했었수다’는 공부했-(용언의 어간)+-었-(과거시제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10)ㄱ~ㄷ에 쓰인 ‘-았-/-었-/-였-’은 과거의 의미를 지니며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상 형태인 ‘-았-/-었-/-였-’ 다음에 결합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도 (10)ㄱ~ㄷ에서와 같이 -우-가 아니라 -수-가 선택되어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았-/-었-/-였-’의 환경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기에서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를 -았-/-었-으로 보려고 한다.

5) -았-과 -었-은 용언의 어간 끝이 양성모음이면 ‘-았-’이 음성모음이면 -었-이 선택되어 쓰이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며 -었-은 -혔다 접사가 결합될 때만 쓰이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있다.

하지만 제주방언의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인 ‘-우-’와 ‘-수-’가 앞에서 살펴 보았던 것과 같이 음운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 단독 형태소만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는 ‘-ㅅ-+-우-’와 같이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기 때문에 ‘-수-’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우-’만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보자는 것이다.

(11)ㄱ. 가의도 그디 가시냐?

(그 아이도 거기에 가 있느냐?)

ㄴ. 예, 그디 갓수다.

(예, 거기에 가 있습니다.)

현평효(1977:3~6)에서는 (11)ㄱ의 예에서 ‘가시-’의 ‘-시-’는 존재어 ‘이시다’의 이형태인 ‘시다’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시다’는 ‘이시다’ 어형과 공존하여 오다가 ‘이시다’형이 우세해져서 오늘날 ‘있다’형으로 고정되고 ‘시다’형은 폐어가 되었지만 방언에서는 ‘이시다’ 어형보다 ‘시다’ 어형이 우세해져서 오늘날 방언의 발화상에서도 빈번히 쓰이는데, ‘가시-’의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11)ㄱ의 ‘가아시-’와 (11)ㄴ의 ‘가앗수-’를 표준어로 옮겨 놓는다면 ‘가아시-’는 ‘가아있-’에, ‘가앗수-’는 ‘가아있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아시-’의 ‘-시-’와 ‘가앗수-’에서 ‘-수-’의 ‘-ㅅ-’도 ‘있다’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1)ㄴ의 ‘갓수다’에서 ‘-수-’의 ‘-ㅅ-’는 ‘-시-’의 이형태로서 「존재·존속」을 의미하는 행태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1)ㄴ의 ‘갓수다’를 형태소로 분석해 보면 가-(용언의 어간)+-앗-(과거시제 선어말어미)+-ㅅ-(존재·존속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갓수다’에서 분석해 낸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앗-’에는 이미 ‘-아 있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ㅅ-’로 「존재·존속」의 의미를 다시 부여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가령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서술어 ‘먹었다’에는 ‘-었-’이라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어 밥을 이미 먹었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완료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갓수다’의 형태소 분석을 ‘가--+--앗--+--ㅅ--+--우--+--다’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가--+--앗--+--수--+--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다음에 제시되는 예를 살펴보더라도 ‘-수-’를 형태소 ‘-ㅅ-’와 ‘-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수-’ 단독형으로 봐야 함이 드러난다.

- (12) ㄱ. 좋수다 / \*좋아있습니다 (좋습니다)  
       ㄴ. 곱수다 / \*고와있습니다 (곱습니다)  
       ㄷ. 족수다 / \*작아있습니다 (작습니다)

(12) ㄱ~ㄷ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를 ‘-ㅅ--+--우-’로 분석하여 ‘-아있다’로 대응해 보면 “\*좋아있습니다, \*고와있습니다, \*족아있습니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수-를 ‘-ㅅ--+--우-’와 같이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수-’를 단일 형태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의 ‘-우-’와 ‘-수-’는 어디에서 그 연원을 두고 있는지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영진(2002:20~22)에서는 ‘-우다, -수다’의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3) ㄱ. -으우다 : ㅅ<sup>6</sup>+으이다>으오이다>으오이다>으오이다>으외다>  
                   으웨다>으우다  
       ㄴ. -수다 : ㅅ<sup>7</sup>+으이다>스오이다>스오이다>소이다>쇠다>  
                   쉐다>수다

6)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술-’은 그 앞에 실현되는 형태소의 소리가 ‘모음이나 ㄴ, ㄹ, ㄹ’ 다음에 -습/술-로 실현되었으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습-’으로, 모음으로 시작 되는 어미 앞에서는 -술-으로 실현되었다. 이승희(2007)에서는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의 기능 변화가 17C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청자 높임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본다.  
 7) 객체높임선어말어미 ‘습’은 그 앞에 실현되는 형태소의 소리가 ‘ㄱ, ㅂ, ㅅ’ 다음에 -습-/-술-로 실현되며 자음어미 앞에서는 -습-, 모음어미 앞에서는 -술-로 실현된다.

(13)ㄱ의 ‘-(으)우다’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술-’의 첫소리 ‘ㄷ’이 소실되고, 끝소리 ‘빙’은 ‘w’로 바뀐 다음에 그것은 ‘-으이-’의 ‘으’와 결합하면서 ‘으오이’가 되고 이어서 ‘이’의 ‘ㅇ’이 첫소리에 쓰이지 않게 되면서 ‘으오이’가 되었으며 ‘으’가 소리값을 잃어 버린 후에는 ‘으오이’의 ‘으’는 ‘으’로 변하여 ‘으오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이’가 다시 ‘외’로 축약되면서 ‘으외다’가 형성되고 ‘외’가 ‘웨’가 된 것은 제주 방언에서 ‘외’는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 ‘웨’로 발음되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웨다’에서 ‘ㄱ’이 탈락되면서 ‘-으우다’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수다’의 경우에는 ‘-으우다’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되, 다만 그것의 첫소리는 처음부터 자음 아래에 쓰이는 ‘-술-’의 ‘ㅅ’이었으므로 ‘ㅅ’이 아무런 변화를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서 ‘-수다’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제주 방언이 상위 언어인 한국어에 드러나는 보편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다만, ‘-으웨다’ ‘-웨다’에서 ‘ㄱ’이 왜 탈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형태로 ‘-우-’와 ‘-수-’가 있으며, 이 ‘-우-’와 ‘-수-’ 바로 앞의 결합 환경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모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 ‘-우-’와 ‘-수-’를 선택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우-’와 ‘-수-’는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는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과 ‘-습-’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으이-’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라는 것이다.

## 2.2.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음-’ 과 ‘-ㅁ-’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언의 어간 결합 시에 동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음에 비해 상대높임 선어말



‘-읍-/-ㅂ-’은 비교적 자유롭게 용언의 어간에 결합되어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의도를 드러낸다.

(14)ㄱ. 철수가 밥 먹읍네다.

(철수가 밥을 먹습니다.)

ㄴ. 철수가 집이 갑네다.

(철수가 집에 갑니다.)

(15)ㄱ. 영희가 질 좋읍네다.

(영희가 제일 좋습니다.)

ㄴ. 영희 지레가 질 큽네다.

(영희의 키가 제일 큽니다.)

(14)ㄱ의 ‘먹읍네다’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14)ㄴ의 ‘갑네다’는 가-(용언의 어간)+-ㅂ-(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14)ㄱ과 ㄴ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읍-’과 ‘-ㅂ-’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읍-’과 ‘-ㅂ-’중에 용언의 어간 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면 -읍-을, 모음으로 끝나면 -ㅂ-를 선택하여 사용된다. 즉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과 -ㅂ-는 용언의 어간 음절 말 음운 환경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는 음운론적 이형태라 할 수 있다. (14)ㄱ과 ㄴ이 동사의 어간에 쓰인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과 ‘-ㅂ-’의 예라면 (15)ㄱ과 ㄴ은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예이다. 이처럼 ‘-우-’와 ‘-수-’가 추측·의지 선어말어미 ‘-크-’나 시상형태의 선어말어미 ‘-암-/-엄-/-염-’ ‘-앗-/-엇-/-옛-’의 결합없이는 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에 비해 ‘-읍-’과 ‘-ㅂ-’는 동사나 형용사에 제약 없이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ㄱ. 철수가 밥 먹읍네다

(철수가 밥을 먹더군요.)

ㄴ. 철수가 집이 갑네다

(철수가 집에 가더군요.)

(17)ㄱ. 영희가 질 좋읍네다

(영희가 제일 좋더군요.)

ㄴ. 영희 지레가 질 큼네다

(영희의 키가 제일 크더군요.)

(16)ㄱ의 ‘먹읍네다’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과거회상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는데, (14)와 (15)의 예에서 형태소 분석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14)와 (15)의 예에서는 먹읍네다, 갑네다, 좋읍네다, 큼네다와 같이 ‘-읍네다, -네다’가 쓰여 직설법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16)과 (17)의 예에서는 ‘-읍네다, -네다’가 쓰여 과거 회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가 동사에는 결합할 수 없고 형용사에만 결합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르고 ‘-읍-/-네-’은 이러한 제약없이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읍네다, -네다’와 ‘-읍데다, -네데다’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읍네다 : 습+ㄴ+이다>-읍ㄴ이다>-읍니다>-읍네다

(19)-읍데다 : 습+더+이다>-읍더이다>-읍데다>-읍데다

(18)의 ‘-읍네다’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습-은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 -읍-<sup>8)</sup>으로 바뀌게 되고,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이-’의 ‘ㅇ’가 음가를 상실한 뒤

초성에 쓰이지 않게 되면서 ‘-읍늬이다’가 되었으며 ‘-늬이-’는 ‘니’로 음운 축약이 일어나고 ‘·’의 소리값을 잃어 버린 후에는 ‘-읍-’은 ‘-읍-’으로 바뀌고 ‘-니-’는 ‘-네-’로 바뀌면서 ‘-읍네다’가 형성되었고 추정된다.

(19)의 ‘-읍네다’의 형성과정도 (18)의 ‘-읍네다’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읍네다’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늬-’가 결합된 형태이며 ‘-읍네<sup>10</sup>다’는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된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것을 (13)에서 살펴 보았던 ‘-(으)우다’, ‘-수다’의 형성 과정과 비교해 보면 ‘-(으)우다’, ‘-수다’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늬-’와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영진(2002:32~33)에서는 ‘-읍/뉘네다’ 및 ‘-읍/뉘네다’의 경우에는 객체높임의 ‘-습-’에 각각 현실법의 ‘-늬-’와 회상법의 ‘-더-’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읍-’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수다’와 ‘-(으)우다’의 경우에는 -습-/-습-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으이-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다’와 ‘-(으)우다’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며 ‘-늬-’<sup>11)</sup>는 형용사에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늬-’가 결합되지 않은 ‘-수다’와 ‘-(으)우다’는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만 직접 통합되고 동사의 어간에는 직접 통합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20) ㄱ. 철수가 밥 먹(으)킴네다 / \*먹(으)킴네다

(철수가 밥을 먹겠더군요 / \*먹겠습는다)

ㄴ. 철수가 집이 가킴네다 / \*가킴네다

(철수가 집에 가겠더군요 / \*가겠습는다)

8) 이승희(2007:201~202)에서는 선어말어미 ‘-습-’은 모음 뒤에서는 -읍-이, ‘ㄷ, ㅌ, ㅈ, ㅊ’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는 ‘-습-’이 결합되는 음운론적 교체를 보이며 결합 문제에 있어서는 시제선어말어미 ‘-늬-, -더-, -리-’ 등보다 앞선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9) 정승철(2013:171)에서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이’는 ‘에’로 합류한 다른 방언들과 달리 제주방언에서는 ‘에’로 합류하였다고한 것을 참조하면 ‘읍늬다’에서 ‘읍네다’로 형태 바꿈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10) 우창현(1992:24)는 중세국어 청자대우 ‘-이-’와 제주방언의 ‘-네-’는 평서문과 의문문에만 나타난다는 공통적 특성을 들어 ‘-네-’는 단일 형태소가 아니고 ‘-더-’에 청자 대우 -이-가 결합되어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1) 고영근(2015:64)에서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직설법의 선어말어미 ‘-늬-’의 통합 여하에 기대어 동사와 형용사가 분간된다고 보고 있다.

ㄷ. 영희가 질 좋(으)킵네다 / \*좋(으)킵네다

(영희가 제일 좋겠더군요 / \*좋겠습는다)

ㄹ. 영희 지레가 질 크킵네다 / \*크킵네다

(영희의 키가 제일 크겠더군요 / \*크겠습는다)

(20)ㄱ의 ‘먹으킵네다’는 먹-(용언의 어간)+-(으)크-(추측 선어말어미)+-읍-(상대존대 선어말어미)+-데-(과거회상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이 되며, ‘먹으킵네다’는 먹-(용언의 어간)+-(으)크-(추측 선어말어미)+-읍-(상대존대 선어말어미)+-네-(현재지속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20)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으킵네다’는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반면에 ‘먹으킵네다’는 그렇지 않다. 이 두형태의 차이는 앞에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데-’와 ‘-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8)과 (19)에서 ‘-읍네다/ㄹ네다’, ‘-읍네다/ㄹ네다’의 형성 과정을 밝힌 바와 같이 ‘-네-’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의 형태가 들어 있으며, ‘-데-’에는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녹아 있다. 즉 ‘먹으킵네다’가 자연스럽게 못한 발화로 생각되는 것은 추측·의지 선어말어미 ‘-크-’와 ‘-네-’의 결합적 제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반면에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데-’가 들어 있는 ‘먹으킵네다’는 화자가 행위 주체의 동작을 보고 그 행위를 떠올리면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는 발화이므로 별다른 제약없이 ‘-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고영진(2002:36)에서는 ‘-(으)크-’가 표준 한국어의 ‘-겠-’에 대응되는 형태로 이 ‘-겠-’은 현실적인 사실을 표시하는 ‘-는(다)’와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먹겠는다’와 같이 표준 한국어의 ‘-겠-’은 현실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는(다)’와 함께 쓰이면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현실법이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하거나 혹은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되는 데에 비하여, 의도 혹은 추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술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는 데에서 두 개념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2.3. 높임 보조사의 ‘-마씀, -양, -예’

상대높임을 드러내기 위해 ‘-수-/-우-’와 ‘-읍-/-ㅂ-’는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 앞에 붙어서 청자에 대한 존대의 의향을 드러냈다면, ‘-마씀<sup>13)</sup>, -양, -예’는 주로 종결어미 뒤나 체언, 부사어, 연결어미 다음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드러낸다.

(21)ㄱ. 가이도 공부 잘 햏염서.

(그 아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어.)

ㄴ. 가이도 공부 잘 햏염서마씀.

(그 아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ㄷ. 가이도 공부 잘 햏염서양.

(그 아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ㄹ. 가이도 공부 잘 햏염서예.

(그 아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21)ㄱ은 [-존대]자질을 부여한 발화며 (21)ㄴ~ㄹ은 ‘-마씀, -양, -예’가 결합되면서 [+존대]자질을 부여한 발화이다. (21)ㄴ의 ‘햏염서마씀’은 햏-(용언의 어간)+-염-(시상 선어말어미)+-시-(진행·존속 선어말어미)+-어(평서형 종결어미)+-마씀(높임 보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21)ㄷ과 ㄹ도 ‘햏염서’에 높임보조사 ‘-양’과 ‘-예’가 종결어미 다음에 붙어서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

(22)ㄱ. 이건 우리 집 췌여.

(이것은 우리 집 소이다.)

ㄴ. 이건 우리 집 췌마씀.

13) 현평효(1991:89)에서 ‘마씀’은 원래 ‘말씀’이란 말이 주로 서술어 어말에 첨부되어서 상대자에게 존대를 표시하는 의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말씀’이 ‘마씀’으로 ‘ㄹ’이 탈락되었는가 하면 근자에 ‘그래서마씀?’(그랬습니까?), ‘감서마심’(가고 있지요.)과 같이 ‘마슴·마심’형으로도 나타나 ‘마씀’의 ‘씀’도 어형이 변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추정한다.

(이것은 우리 집 소요.)

ㄷ. 이견 우리 집 췌양.

(이것은 우리 집 소요.)

ㄹ. 이견 우리 집 췌예.

(이것은 우리 집 소요.)

(22)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 없이 [-존대]자질을 부여한 헨라체 발화며 (22)ㄴ~ㄹ은 체언 뒤에 ‘-마씀, -양, -예’가 결합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23)헨저계. / 헨저마씀. / 헨저양. / 헨저예.

(빨리)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헨저’는 ‘빨리’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로 ‘헨저마씀, 헨저양, 헨저예’와 같이 부사에 ‘-마씀, -양, -예’가 붙어서 높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4)ㄱ. 경만 해주민 잘도 좋으크라.

(그렇게만 해주면 매우 좋겠어.)

ㄴ. 경만 해주민마씀 잘도 좋으크라마씀.

(그렇게만 해주면요 매우 좋겠어요.)

ㄷ. 경만 해주민양 잘도 좋으크라양.

(그렇게만 해주면요 매우 좋겠어요.)

ㄹ. 경만 해주민예 잘도 좋으크라예.

(그렇게만 해주면요 매우 좋겠어요.)

(24)ㄱ은 [-존대]자질을 부여한 발화인데 반해 (24)ㄴ~ㄹ은 연결어미 뒤에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마씀, -양, -예’가 결합되면서 [+존대]의 자질이 부여되고

있다. (24)ㄴ의 ‘해주민마씀’은 하-(용언의 어간)+-여(보조적 연결어미)+주-(보조 용언)+-민(종속적 연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민’이라는 연결어미 뒤에 ‘-마씀, -양, -예’가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4)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씀, -양, -예’가 종결어미, 체언, 부사, 연결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높임 보조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마씀’과 ‘양/예’의 차이점<sup>14)</sup>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25)ㄱ. \*일 헛젠 헛난 잘도 속암수다마씀.

(일을 하려고 하니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ㄴ. 일 헛젠 헛난 잘도 속암수다양.

(일을 하려고 하니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ㄷ. 일 헛젠 헛난 잘도 속암수다예.

(일을 하려고 하니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25)ㄱ의 ‘속암수다마씀’은 제주 토박이 화자라면 매우 어색한 발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5)ㄴ과 ㄷ의 ‘속암수다양, 속암수다예’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발화로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25)ㄱ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화자가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를 부여하여 높임 선어말어미 ‘-수-’를 ‘속암다’에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데 ‘-마씀’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잉여적 표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25)ㄴ과 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가 결합된 문장에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양’과 ‘-예’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양, -예’의 연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14) 문순덕(2014:123~124)에서 ‘마씀’은 주로 반말체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높여주는데 비해 첨사 ‘양/예’는 아주높임이나 두루낮춤에 두루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며 세 첨사는 청자높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만 실현되는 통사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주객관적 감정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마씀’을 사용하면 격식을 갖추고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이며, ‘예’는 화자와 청자 간에 조금 더 친밀한 사이일 때나 친밀한 관계로 인식할 때 쓰이며 ‘양’은 ‘예’의 발화조건과 같은데 화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추정된다.

(26)ㄱ. \*영희 지레가 질 크우다마씀.

(영희의 키가 제일 큼니다.)

ㄴ. 영희 지레가 질 크우다양.

(영희의 키가 제일 큼니다.)

ㄷ. 영희 지레가 질 크우다예.

(영희의 키가 제일 큼니다.)

(26)ㄱ의 ‘크우다마씀’도 (25)ㄱ의 ‘속암수다마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않은 표현임을 알 수 있다. (25)ㄱ의 예와 마찬가지로 ‘크다’에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높임의 의미를 지닌 ‘-마씀’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씀’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우-’가 결합된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양’과 ‘-예’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높임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27)ㄱ. \*맹심홍영 갑서마씀.

(조심해서 가세요.)

ㄴ. 맹심홍영 갑서양.

(조심해서 가세요.)

ㄷ. 맹심홍영 갑서예.

(조심해서 가세요.)

(27)ㄴ과 ㄷ의 ‘갑서양’ ‘갑서예’는 자연스럽게 높임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27)ㄱ의 ‘갑서마씀’은 어색하게 들린다. 이런 이유는 (25)와 (26)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ㅂ-’이 사용된 문장에 다시 ‘-마씀’이 결합되어 불필요하게 이중 높임이 실현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5)~(27)의 예를 종합해보면 -수-/-우-, -읍-/-ㅂ-가 결합된 문장에서는 ‘-마씀’의 결합 제약이 따르는 반면 ‘-양, -예’는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씀’과 ‘-양, -예’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우-’, ‘-읍-/-ㅂ-’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가 부여된 문장에 ‘-양, -예’를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양, -예’가 ‘-마씀’과는 다르게 높임의 의미 외에 다른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씀’과 같이 쓰였던 ‘-양’과 ‘-예’는 ‘-마씀’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8)ㄱ. 양, 이레왕 뵈썌.

(예, 여기로 와서 보십시오.)

ㄴ. 예, 어드레 감수과?

(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28)ㄱ의 ‘양’은 청자에게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청자를 부르는 발화로 감탄사에 해당되며, (28)ㄴ의 ‘예’는 청자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그것을 묻기 위해 청자를 부르는 어휘로 (28)ㄱ의 ‘양’과 마찬가지로 감탄사에 해당된다. 감탄사는 독립성이 강하여 발화된 문장과 떨어져서 쓰일 수 있는 문법적 특징이 있다. 가령, “양, 이레왕 뵈썌”를 “이레왕 뵈썌, 양”과 같이 문장 끝에 부름말이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양’과 ‘예’는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여 청자를 부르기 위한 감탄사로 쓰이다가 문장 끝으로 ‘-양’과 ‘-예’가 자리를 옮기면서 ‘-마씀’과 같이 [+존대]의 자질이 부여된 발화 상황에도 쓰여 높임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9)ㄱ. 철수도 공부헝염시카마씀?

(철수도 공부하고 있을까요?)

ㄴ. 철수도 공부헝염시카#양?

(철수도 공부하고 있을까요?)

ㄷ. 철수도 공부했습니까#예?

(철수도 공부하고 있을까요?)

(29)ㄱ과 (29)ㄴ~ㄷ의 발화장면을 비교해 보면 (29)ㄱ은 ‘공부했습니까’와 ‘-마씀’ 사이에 휴지없이 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29)ㄴ과 ㄷ의 ‘공부했습니까’와 ‘-양/-예’사이에 휴지를 두고 발화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양’과 ‘-예’는 청자를 높여 부르는 감탄사 역할을 하던 것이 문장 끝으로 옮겨 사용되면서 감탄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높임보조사 역할까지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마씀’은 표준어 ‘요’에 대응되는 높임보조사로 볼 수 있지만 ‘-양/-예’는 감탄사와 높임보조사의 성질을 동시에 지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씀’은 [-존대]자질을 지닌 문장인 ㅎ여체와만 결합이 가능한 반면에 ‘-양’과 ‘-예’는 [-존대]자질을 지닌 문장과 [+존대]자질을 지닌 문장 어디든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 2.4. 의문형 종결어미와 높임의 ‘-과’

일반적으로 ‘-과’는 [+존대]자질이 부여된 문장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가, -까’가 주로 사용되며 지역, 성별, 나이, 계급에 따라 ‘-과/-과’ 혹은 ‘-광/-광’으로 발화되기도 한다.

15) 현평효(1991:90~91)에서 ‘예’는 존대하는 자리에 대답하거나 상대자가 말한 것을 재우쳐서 묻는 말로 쓰이는 감탄사이었는데, 이것이 경상도 방언 등에서 서술어의 어말에 첨부되어 존대를 표시하는 첨사로 발화되더니만, 어느새 이 지방 방언 사회에도 전파되어 들어와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말씨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고 서술한다. 원래 이 방언에서는 존대하는 자리에 재우쳐서 묻는 말로 쓰여 오고 있는 감탄사는 ‘양·야’이다. 이 ‘양’이 서술어의 어말에 첨부되어서 ‘가의도 오람서양?’(그 아이도 오고 있지요?)과 같이 존대를 나타내는 발화로 언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면서 존대하는 자리에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이제 존대하는 자리에 재우쳐서 묻는 첨사로 원용하기에 이르는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30)ㄱ. 삼춘, 무신거 ㅎ염수가? / ㅎ염수까?

(삼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ㄴ. 삼춘, 무신거 ㅎ염수과? / ㅎ염수과?

(삼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0)ㄱ의 ‘ㅎ염수가(까)’는 ㅎ-(용언의 어간)+-염-(현재진행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까(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30)ㄴ의 ‘ㅎ염수과 /-과’는 (30)ㄱ의 ‘ㅎ염수가/-까’를 형태소로 분석한 것과 같다. 다만, (30)ㄱ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의 형태가 ‘-가’와 ‘-까’로, (30)ㄴ에서는 ‘-과’와 ‘-과’로 문장을 종결하여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만 다를 뿐이다.

이승녕(1978:69~70)에서는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어미인 ‘-가, -까, -과, -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존칭의 의문문어미 ‘-까?’를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       |       |
|-------|-------|
| ㅎ염수가? | ㅎ염수강? |
| ㅎ염수까? | ㅎ염수깡? |
| ㅎ염수과? | ㅎ염수광? |
| ㅎ염수과? | ㅎ염수광? |

여기서 ‘-까, -깡, -과, -광’의 이중자음인 ‘-ㄱ-’란 경음은 비록 ‘ㄱ’의 배가(倍加) 같지만 기실 그 경음의 도가 육지어 경우보다 약하여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 여러 종류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도인의 언어관으로는 ‘-깡, -광’은 계급적으로 따져서 비천한 무교양한 계급이나 아동간에 사용되는 것이고 지식층이나 상류계급에서는 ‘-깡, -광’은 그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녕은 여기에 대하여 육지방언으로도 경상도 방언에 ‘-강?, -이강?, -공?, -능기요?’가 있고, 함경도 방언에는 ‘-깡, -하깡?, -우깡?’이 있고, 황해도 방언에 ‘-깡이?’가 있고, 전라도 방언에 ‘-하랑께?, -이랑께’가 있어 참으로

‘-강?, -깡?, -광?, -깡?’이 광역에 깔린 것이며 이 -ŋ-의 발달은 강력한 경향일 것이라 본다. 적어도 방언지도를 꾸민다면 남북의 변방지역에 남았다 함은 지극 흥미 있는 일이며 지금 본도방언에서는 의문문 말미의 -ŋ-가 탈락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발화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ㅍ’가 과연 의문형 종결어미 쓰임으로만 봐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31)ㄱ. 는 감이가, 움이가 ?

(너는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ㄴ. 삼춘, 감이ㅍ, 움이ㅍ?

(삼춘,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31)ㄱ은 화자가 특정 장소에서 청자를 만났을 때 청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장면이며, (31)ㄴ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발화 장면이다. (31)ㄱ의 ‘움이가’는 오-(용언의 어간)+-ㄱ(명사형 어미)+-이-(서술격 조사)+-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31)ㄴ의 ‘움이ㅍ’는 오-(용언의 어간)+-ㄱ(명사형 어미)+-이(서술격 조사)+-ㅍ(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31)ㄱ과 ㄴ의 형태소를 비교해 보면 오-(용언의 어간)+-ㄱ(명사형 어미)+-이(서술격 조사)까지는 같은데, (31)ㄱ은 ‘-가’로 문장이 끝나고 (31)ㄴ은 ‘-ㅍ’로 문장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ㅍ’가 단순하게 의문형 종결어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존대]자질이 부여된 (31)ㄴ의 발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문형 종결어미 ‘-ㅍ’ 속에는 물음의 의도뿐만 아니라 높임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ㄱ. 삼춘, 이제사 집이 감이ㅍ?

(삼춘, 이제야 집에 가는 것입니까?)

ㄴ. \*삼춘, 이제사 집이 감이까?

(삼춘, 이제야 집에 가는 것입니까?)

(32)ㄱ과 ㄴ의 발화 장면을 비교해 보면 (32)ㄱ은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물음이나 친교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32)ㄴ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 결합없이 부자연스럽다. 즉 ‘감이우까?’는 자연스럽지만 ‘감이까?’는 제주 토박이 청자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다.

(33)ㄱ. 삼춘, 이제사 집이 감이우파?

(삼춘, 이제야 집에 가는 것입니까?)

ㄴ. 삼춘, 이제사 집이 감이파?

(33)ㄱ의 ‘감이우파’는 가-(용언의 어간)+-ㅁ(명사형 어미)+-이-(서술격 조사)+-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파(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33)ㄱ에서 분석된 ‘-파’를 (33)ㄴ ‘감이파’의 ‘-파’와 같이 높임의 의도가 내재된 발화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33)ㄱ의 ‘감이우파’에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사용되었는데 거듭하여 상대높임의 어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 앞에서 예시한 (31)~(33)의 문장에서 서술어만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의문형 종결어미와 높임의 ‘-파’

[+존대]	[-존대]
감이파?	(*감이과?)
감이우파?	*감이까?
(감이우까?)	감이가?

( )의 어휘는 (31)~(33)의 문장에는 없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덧붙여 제시함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이파, 감이우파, 감이우까’는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발화됨을 볼 수 있다. 즉, ‘감이우파, 감이우까’에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 다음에 결합되어 있는 ‘-파,-까’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감이파’에 ‘-파’는 높임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까’와 ‘-파’를 ‘-까’와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단순하게 의문형 종결어미로 처리하는 기존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파’가 높임의 종결어미임을 밝히기 위해서 제주 방언의 [+존대]의 의미를 부여한 의문형 종결어미 기본 형태를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의 [+존대]자질을 부여한 의문형 종결 형태는 다른 문장 유형인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과 다르게 ‘-느닛가, -느니잇가’로 ‘스’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에 결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스’가 다음에 이어지는 의문형 종결어미 ‘-가’에 영향을 주어 된소리 [-까]로 발음되고 이후에 ‘-까’로 고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제주 방언에서는 ‘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형태인 ‘-가’와 ‘스’의 영향을 받은 ‘-까’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가’와 ‘-까’의 발음의 혼란 과정을 겪으며 ‘-과’와 ‘-파’의 형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4)ㄱ. 철수 밥 잘 먹읍네까? / \*먹읍네까?

(철수는 밥을 잘 먹습니까?)

ㄴ. 철수 밥 잘 먹읍데까? / \*먹읍데까?

(철수는 밥을 잘 먹었습니까?)

(34)ㄱ은 화자가 ‘철수’의 밥 먹는 상태가 궁금하여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며 현재 철수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묻는 발화이며, (34)ㄴ은 철수가 과거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었는데 그것을 본 청자가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철수가 밥을 잘 먹었는지 여부를 화자에게 대답해야 하는 발화 장면이다. (34)ㄱ의 ‘먹읍네까’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까(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34)ㄴ의 ‘먹읍데까’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데-(과거회상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34)ㄱ과 ㄴ을 비교해 보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

네-' 다음에는 의문형 종결어미 '-까'의 형태가 결합되고,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테-' 다음에는 의문형 종결어미 '-가'의 형태가 결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중세 국어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된 형태인 '-느닛가-, -느니잇가'의 '스'가 다음에 이어지는 의문형 종결어미 '-가'에 영향을 주어 된소리로 발음되던 것이,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네-'가 결합된 형태에 된소리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평효(1985:115)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문법 어미를 서법에 따라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음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2> 의문법 어미

존대등분 서법	하라체	하여체	흡서체
직설법	-느냐 -느니 -나 -냐 -니	-는가 -는고 -아-/-어	- ㅂ네까·-ㅂ니까
회상법	-더냐 -더니 -아냐/-어나 -아니/어니 -라냐 -라니 -안다/-언다 -안디/-언디 -안다/-언다	-던가 -던고 -안가/-언가·-아/-어 -안고/-언고 -란가 -란고 -안/언	-ㅂ 데가·ㅂ디가 -안가마씀/-언가마씀 -아마씀/-어마씀 -ㅂ 데가·-ㅂ디가 -란가마씀 -ㅂ 데가·ㅂ디가
추측법	-크냐 -크니	-크 까·-카·-큰 가·- 르 까·크라 -코	-쿠가·-카마씀 -코마씀
의도법	-르다 -르디 -르티 -르다	-젠·-크라·-큰가	-쿠가·-젠마씀

	-르타 -르라 -르리 -르레		
--	--------------------------	--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대]질을 부여한 흡서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과, -파’ 보다는 ‘-가, -까’의 형태를 주로 제시함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주 토박이 화자들이 발화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더라도 ‘-과/-파’ 형태의 종결어미를 활용하기 보다는 ‘-가/-까’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존대]자질이 부여된 제주 방언의 의문형 종결어미 기본 형태는 ‘-가/-까’로 보아야 하며 ‘-파’는 높임의 의도가 부여된 의문형 종결어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제3장.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의 등급체계 설정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 기능으로 화자가 특정한 종결어미 내지는 선어말 어미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높임의 의도와 높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제주 방언은 선어말 어미 ‘-(으)우-, -수-, -읍/ㅂ-’ 와 높임보조사 ‘-마씀’, 의문형 종결어미 ‘-파’ 등을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와 높임의 정도를 드러냄을 보았다. 하지만 상대 높임의 등급체계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어 등급체계를 활용하여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3.1. 상대 높임 등급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보완점

현평호(1977:12~20)에서는 상대 높임 등급체계를 높임법 어미의 형태에 따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삽입된 형태 ‘-ㅂ-’가 삽입된 형태, ‘-마씀’ 형태의 상대 높임 등급체계를 <표3>~<표5>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3> ‘-우-’가 삽입된 형태의 상대높임법 등급체계

등급체계 서법	홉서체(존대)	ㅎ여체(평대)	ㅎ라체(하대)
평서법	감수다 떡꾸다	감서 떡크라	감저 떡키여

	오랏수다 히우다	오라서 히여	오랏저 히다
의문법	감수가? 가쿠가? 먹어수과? 크우과?	감서? 가젠? 먹어서? 크어?	감다? 갈다? 먹어시냐? 크냐?

<표4> ‘-ㅅ-’가 삽입된 형태의 상대높임법 등급체계

등급체계 서법	흡서체(존대)	ㅎ여체(평대)	ㅎ라체(하대)
평서법	먹읍네다 읍네다 놀암십네다	먹네·먹으메 오란게 놀암선게	먹나 오라라 놀암서라
의문법	봌네가? 갑네까? 먹엄십네가?	보안가? 가는가? 먹엄선가?	보안다? 가느냐? 먹엄서냐?
명령법	먹읍서 봌서 놀암십서	먹어 보아 놀암서	먹으라 보라 놀암시라
청유법	갑쥐 더꿍쥐 글읍서	가쥐 더끄쥐 글어	가자 더끄자 글라

<표3>은 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삽입된 형태의 상대 높임법 등급체계를 제시한 것으로서 <표4>와는 다르게 명령법, 청유법의 서법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평효(1977:13)에서도 ‘-우-’가 결합되는 상대 높임법인 경우 평서법과 의문법의 발화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이것은 상대 높임법을 지시하는 형태소로서 ‘-우-’가 지니는 특징적인 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우-’가 삽입된 형태의 상대높임 등급 체계에서 명령법과 청유법에 나타나는 서법상 제약이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2.1.절 (13)과 ㄴ의 ‘-우-’와 ‘-수-’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원래 객체 높임법으로 사용되던 ‘습(습)’의 변화를 거치

는 과정에서 17C 무렵 상대 높임법의 기능을 지니게 된 -습-은 ‘-으이-’와 결합되면서 ‘-수-’의 형태로 변화 과정을 겪으며 존재하게 되었고 ‘-습-’은 ‘-으이-’와 결합되고 ‘△’이 소실되는 과정을 거치며 ‘-우-’의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표4>에서 제시된 -ㅁ-의 형태는 2.2.절의 (18)과 (19)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습+늑’ 혹은 ‘습+더’가 결합되어서 ‘-습네다/-ㅁ네다’와 ‘-습테다/-ㅁ테다’의 형태가 이뤄진 것으로 자음 뒤에는 ‘-습-’이, 모음 뒤에는 ‘-ㅁ-’가 쓰이게 된 것이다. 결국 ‘-우-’와 ‘-ㅁ-’는 ‘-습-’이라는 같은 형태소에서 출발하여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형태소에 연원을 두고 있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ㅁ-’가 ‘-우-’에는 명령문, 청유문에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르고 ‘-ㅁ-’ 형태의 선어말 어미에는 이런 제약 없이 높임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시제를 표시하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늑-’는 동사에 주로 결합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는 ‘-늑-’의 결합 없이 -습--으이-의 결합으로 생겼기 때문에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만 직접 결합되고 동사의 어간에는 결합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는 2.1.절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암-/-엄-’ ‘-앗-/-엇-’, ‘-크-’와 같은 시상 형태소나 추측·의지 형태소 결합이 없이는 동사에는 결합할 수 없고 형용사에만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는 결합할 수 없는 서법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6)</sup>

<표5> ‘-마씀’ 형태의 상대높임법 등급체계

등급체계 서법	흡서체(존대)	ㅎ여체(평대)	ㅎ라체(하대)
평서법	먹엄쥐마씀 오란게마씀 보앗쥐마씀	먹엄쥐 오란게 보앗쥐	먹엄저 오라라 보앗저

16)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예빠라’, ‘예쁘자’와 같이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일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의문법	먹언마씀? 오카마씀? 추언마씀?	먹언? 오카? 추언?	먹언다? 오크냐? 추우냐?
청유법	막쥐마씀 가쥐마씀 홉주마씀	먹쥐 가쥐 홉쥐	먹자 가자 홉자

<표5>에서는 명령법이 제시되지 않아 명령법에 대한 서법상 제약이 따르는 형태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하지만 <표5>에 제시된 ‘-마씀’형태의 높임체계는 ‘히려체’에 ‘-마씀’을 붙여 발화자의 수행 억양에 따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밥 먹언마씀.(↘)과 같이 하강조의 억양이면 평서법, 밥 먹언마씀?(↗)과 같이 상승조의 억양으로 발화하면 의문법의 의미로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다만, ‘-마씀’은 비격식체에 사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격식체인 히라체 종결형 다음에 결합되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표3>~<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평효(1977)에서는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홉서체(존대), 히려체(평대), 히라체(하대)인 삼항적 대립체계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홉서체는 청자에게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한 경우에 해당되며 히라체는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히려체에 [±존대]의 자질을 설정하고 존대와 하대 사이에 평대(히려체)등급을 더 두어서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를 삼항적 대립 체계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삼항적 분류체계는 표준어 상대높임법의 6등급 체계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표6> 표준어 상대 높임체계 구분

형태	높임의 구분	용례	
격식체	합쇼체	아주 높임	이 책을 읽으 <u>십시오</u> . 또 오 <u>겠습니다</u> .
	하오체	예사 높임	어서 서 <u>둘러</u> 가 <u>오</u> . 왜 꾸물 <u>거리</u> 오?
	하게체	예사 낮춤	박 <u>군</u> , 이리 와 <u>서</u> <u>앉</u> 게. 혼자 왔 <u>는가</u> ?
	헤라체	아주 낮춤	책을 조용히 읽 <u>어라</u> . 일찍 일 <u>어나</u> 야 <u>한</u> 다.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 높임	어서 서둘러 가요. 왜 꾸물거려요?
	해체	두루 낮춤	책을 조용히 읽어. 박군, 이리 와서 앉아. 혼자 왔어?

(※ 밑줄은 등급 표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문법에서 제시한 상대높임 등급체계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로 나뉜다. 이것을 [격식성]자질에 관계없이 높임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면 [-존대]자질로 해라체와 해체, [±존대]자질로 하계체와 하오체, [+존대]자질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로 재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해라체는 청자를 가장 낮추어 발화하는 것으로 연하의 사람이나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널리 쓰이며, 해체는 해라체보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느낄 때 사용한다. 그리고 하계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어투로 해라체나 해체보다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높여 대우하는 경우에 쓰이며 하오체는 하계체보다 더 높여 대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어투이다.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는 윗사람인 청자에게 높임의 의도를 지니고 발화하는 어투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라체와 해체는 [-존대]자질을 지닌 ㅎ라체에, 하계체와 하오체는 [±존대]자질을 지닌 ㅎ여체에,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는 [+존대]자질을 지닌 ㅎ서체에 각각 대응된다.

하지만 이런 삼항적 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존대 표지가 없는 ㅎ여체와 ㅎ라체 중에 어느 어투가 더 [존대]의 자질을 포함하여 발화하고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35)ㄱ. 날랑 이거 먹크라

(나는 이것을 먹겠다.)

ㄴ. 날랑 이거 먹켜

(나는 이것을 먹겠다.)

(35)ㄱ의 ‘먹크라’는 먹-(용언의 어간)+-크-(미래의도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35)ㄴ의 ‘먹켜’는 먹-(용언의 어간)+-키-(미래의

도 선어말어미)+-어(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35)ㄱ과 (35)ㄴ 각각의 어휘에 용언의 어간 ‘먹-’과 국어의 ‘-겠-’에 대응되는 미래의도 선어말어미 ‘-크-’와 ‘-키-’를 제외하고 나면 ‘-라’와 ‘-어’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종결어미 형태만으로 높임의 정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은 제시된 예문을 (35)ㄱ과 ㄴ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표4>에서 나타나는 호여체와 호라체의 명령형에서 높임의 정도를 구별하기는 더욱 어렵다.

(36)ㄱ. 늘랑 혼저 밥 먹어

(너는 빨리 밥을 먹어.)

ㄴ. 늘랑 혼저 밥 먹으라

(너는 빨리 밥을 먹어라.)

(36)ㄱ과 ㄴ은 <표4>에서 호여체(평대)로 분류하고 있는 ‘먹어’와 호라체(하대)로 분류하고 있는 ‘먹으라’를 예로 든 발화 장면이다. (36)ㄱ과 ㄴ을 <표6>에서 제시된 표준어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적용해 보면 (36)ㄱ은 해체에, (36)ㄴ은 해라체에 해당된다. 격식체인 해라체와 비격식체인 해체는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해라체는 [+격식성]을 부여하여 발화하였기 때문에 해체보다는 해라체가 [존대]의미를 조금 더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평효(1977)에서는 (36)ㄱ은 [±존대]자질이 부여된 호여체(평대)로 (36)ㄴ은 [-존대]자질을 부여한 호라체(하대)로 분류함으로써 해라체보다 해체가 더 존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임의 정도에 따라 호여체와 호라체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호여체와 호라체를 [-존대]자질로 분류하되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분류자질로 [격식성]여부를 추가하여 등급체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승녕(1978:67)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극존칭 등급을 더 설정하여 4등급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표7>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

平稱	中稱	尊稱	極尊稱
하라	하심	홉씨	하십씨
ㄹ라라,(골라)	ㄹ르심	ㄹ릅씨	ㄹ르십씨
가라	가심	갑씨, 그릅씨	가십씨
받으라	받으심	받읍씨	받으십씨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녕(1978:67)에서는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으로 나누면서 極尊稱에서 ‘-시-’가 插入된 것은 陸地語의 浸透의 結果가 아닌가 하는데, 이 ‘-시-’를 넣어 敬語法을 꾸미는 法이 濟州道로서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며, 一般的으로 敬語의 三者差等으로서 定型화된 것 같은데, ‘-시-’가 插入됨으로써 四者의 差等を 보인다는 것도 疑心이 나기는 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등급체계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7>에서 제시된 극존칭 ‘하십씨, ㄹ르십씨, 가십씨, 받으십씨’처럼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삽입하여 존대의향을 나타내는 경우 노년층의 토박이 화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공기관계를 이루는 높임 주격조사 ‘께서’가 제주방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 방언에 극존칭을 설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송녕(1978)에서 극존칭에서 ‘-시-’가 삽입된 것은 육지어의 영향으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한 바 있으므로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에서 극존칭은 제외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에 종결어미 ‘-심’이 붙어 ‘하심, ㄹ르심, 가심, 받으심’처럼 활용되는 경우는 제주도 화자들 간의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 몇 가지 상황에서 발화될 뿐이다. 첫째, 화자와 청자 간의 어떤 논쟁에서 화자가 실제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 청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의 경우 둘째, 진지한 대화가 아닌 농담조의 대화에서 발화되는 경우 셋째, 재촉의 의미로 발화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경우에도 남성화자보다는 여성화자에게서 간혹 나타날 뿐이다. 즉 종결어미 ‘-심’을

사용한 발화는 평칭보다 상대자에게 격식과 존대의 의향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칭’의 등급을 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종결어미 ‘-심’을 사용한 중칭은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에서 높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설정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등급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승녕의 4등급 체계를 재정리하면 ‘-시-’가 삽입된 제주 방언의 극존칭은 등급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중칭은 평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는 4등급 체계가 아닌 [+존대]와 [-존대]자질로 나누어 이항적 대립체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지홍(2014:228~232)에서는 명령서법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높임 등급을 흡서체, 햅여체, 햅라체로 나눈 현평효(1985)의 3등급 체계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명령 서법의 종결어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 또는 의문 서법의 종결어미까지 나눈 일은 아무런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고유한 서법의 종결어미 부류 및 억양만 달리하여 두루 여러 서법에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 부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햅라(햅라)’는 고유한 명령 서법의 종결어미이다. 그러나 ‘햅여’(햅)는 억양을 달리하여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이다. 따라서 ‘햅라’이든 ‘햅여’이든 같은 등급에서 주고받는 말투일 뿐이다. 이를 하대와 평대로 나눈 것은 명백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형태 분석 방법의 틀을 제대로 설정치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법에 따라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를 나누고 있다.

<표8> 서법에 따른 대우 체계

어투 서법	청자 대우		평대(대우하지 않음)	
	격식투(읍)	비격식투(수)	서법 고유 형태	반말투
서술	-읍네다, -읍테다	-수다, -수과, -수계, -(으)우다, -(으)웃과, -(으)우계	-다	-어(청유 ‘-계, -주도 가능)
의문	-읍네까?,	-수가?, -수과?, -수가?,	-가?	



	-읍데가?	-(으)웃과?, -(으)우과?		
명령	-읍서!	X	-으라!, -거라!	
청유	-읍주!		-자!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를 높이는 높임 체계를 청자 대우와 대우하지 않는 평대로 나눈 후 다시 청자 대우를 격식투와 비격식투로 분류하고 평대를 서법 고유 형태와 반말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분류 자질로 [존대]의 유무뿐만 아니라 [격식성] 여부를 상대 높임 등급체계의 분류 자질로 설정함으로써 앞서 살폈던 현평효(1977)와 이송녕(1978)의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격식투로 분류한 ‘-읍-’이 결합된 발화 상황과 비격식투로 분류한 ‘-수-/-우-’가 결합된 발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면 어떤 것이 격식체 높임이고 비격식체 높임인지 구별이 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37)ㄱ. 그 사람 밥 잘 먹읍네까?

(그 사람 밥을 잘 먹습니까?)

ㄴ. 그 사람 밥 잘 먹읍수가?

(그 사람 밥을 잘 먹고 있습니까?)

ㄷ. 철순 이제사 밥 먹읍이우과?

(철순 이제야 밥을 먹습니까?)

(37)ㄱ~ㄷ의 ‘먹읍네까’, ‘먹읍수가’, ‘먹읍이우과’를 분석해 보면 (37)ㄱ은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까(의문형 종결어미)로, (37)ㄴ은 먹-(용언의 어간)+-읍-(현재진행 선어말어미)+-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37)ㄷ의 ‘먹읍이우과’는 먹-(용언의 어간)+-읍(명사형 어미)+-이-(서술격 조사)+-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과(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예문 (37)ㄱ~ㄷ의 상대높임의 표

지는 ‘-읍-’과 ‘-수-’, ‘-우-’로 나타나는데 ‘-읍-’이 ‘-수-’나 ‘-우-’보다 더 격식성과 공식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격식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며 표현이 직접적이고 단정적이며 객관적인데 반해 비격식체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7)ㄱ~ㄷ 중에 어느 발화가 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이 쓰이면 격식체로 ‘-수-’나 ‘-우-’가 쓰이면 비격식체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인 ‘-읍-/-ㅂ-’와 ‘-수-/-우-’는 2.1.절의 (13)ㄱ과 ㄴ, 2.2.절의 (18)과 (19)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습(습)의 변화 과정을 거치며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형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즉 ‘-읍-/-ㅂ-’와 ‘-수-/-우-’는 ‘-습-’이라는 같은 형태소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임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읍-’과 ‘-수-/-우-’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하여 높임 등급을 세우는 것보다는 ‘-읍-’과 ‘-수-/-우-’를 [+존대]와 [+격식성]을 갖춘 흡서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 3.2. 상대 높임 등급 체계 재설정

3.1.절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 존대법 등급 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상대존대법 등급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현평효(1977)에서 제시하고 있는 흡서체, 햅여체, 햅라체의 삼항적 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존대 표지가 없는 햅여체와 햅라체 중에 어느 것이 더 [+존대]자질을 지니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높임의 정도에 따라 햅여체와 햅라체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존대]자질로 분류하되 상대 높임 분류 자질로 [격식성] 여부를 추가하여 등급 체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승녕(1978)에서 논의하고 있는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의 4등급 체계에서 극존칭인 ㅎ십서체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삽입은 육지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제주 방언의 등급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평칭과 중칭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칭은 평칭에 포함시켜야 함을 논의한 바가 있다.

김지홍(2014)에서는 상대높임 체계를 일차적으로 청자 대우와 평대로 나눈 후에 다시 청자 대우를 격식투와 비격식투로 분류하고 평대를 서법 고유 형태와 반말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격식투로 설정한 ‘-읍-’과 비격식투로 분류한 ‘-수-/-우-’ 중에 어느 것이 더 [격식성]자질이 부여되었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 -수-, -우-’는 중세 국어의 ‘-습-’이라는 같은 형태소에서 출발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 -수-, -우-’가 결합된 상대높임은 같은 등급 체계인 흡서체로 보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를 재설정하면 [격식성]자질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격식체는 [존대]자질 여부에 따라 [+존대]자질을 지닌 흡서체와 [-존대]자질을 지닌 ㅎ라체로 나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격식체도 [+존대]자질을 지닌 ㅎ여마씀체와 [-존대]자질을 지닌 ㅎ여체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 체계는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흡서체,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ㅎ라체,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ㅎ여마씀체,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ㅎ여체와 같이 4등급 체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 체계의 분류 기준이 되는 [존대]자질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ㅁ-, -수-/-우-’와 높임 보조사 ‘-마씀’의 사용 여부에 따라 [+존대]와 [-존대]로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가 있지만 [격식성]자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표지가 없어 [+격식성]과 [-격식성]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어에서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높임 보조사 ‘요’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요’는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높임 보조사 ‘-마씀’의 문법적 기능과 특징이 매우 흡사하다.

(38) ㄱ. 공부 열심히 하여마씀.

(공부 열심히 해요.)

ㄴ. \*공부 열심히 하라마씀.

(\*공부 열심히 해라요.)

(38)ㄱ과 ㄴ의 ‘하여마씀’에 해당되는 ‘해요’와 ‘하라마씀’에 해당되는 ‘\*해라요’를 비교해 보면 등급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8)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이뤄진 높임 표현은 표준어 비격식체인 해요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어 높임 등급 체계의 하나인 ‘해체’에 높임 보조사 ‘-요’가 결합되어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마씀<sup>17)</sup>’도 제주방언의 하여체와 결합되어 [+존대]의 자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라마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표준어에서 격식체 다음에 높임 보조사 ‘-요’를 붙였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예컨대, 표준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에 각각 높임 보조사 ‘요’를 결합해 보면 \*하십시오요, \*하오요, \*하계요, \*해라요와 같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39) ㄱ. 가이도 공부 잘 하여서마씀.

(그 아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ㄴ. 이진 우리 집 췌마씀.

(이것은 우리 집 소요.)

ㄷ. 한저마씀.

(빨리요.)

ㄹ. 경만 해주민마씀 잘도 좋으크라마씀.

(그렇게만 해주면요 매우 좋겠어요.)

17) 한동완(2002:16)에서는 ‘-마씀’은 서울 방언의 ‘-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형태적 실현형은 다르다손 치더라도 서울 방언의 ‘-요’나 충청 방언의 ‘-유’, 경상 방언의 ‘-예’ 등과 같이 어말어미나 체언 등과 같은 폐쇄 형식 뒤에 출현하여 청자 대우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적 절차가 제주 방언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9) ㄱ~ㄴ에서 제주 방언으로 발화된 문장과 표준어로 고쳐 놓은 문장을 비교해 보면 ‘-마씀’의 쓰임과 ‘-요’의 쓰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는 주로 ‘해체’ 종결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높임보조사로 격식체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과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어미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드러낸다는 점이 ‘-마씀’과 많이 닮아 있다. 현평효(1977:29)에서는 「대자존대」 형태소 ‘-우-’와 ‘-ㅁ-’가 있는데도 다시 ‘-마씀’까지 「대자존대」 형태로 전용하기에 이르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 /-마씀/이 「대자존대」의 형태소 {-우-}나 {-ㅁ-}이 접미되어 있지 않은 체언, 용언어미들에 첨부되어서 반문의 의문법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반문의 의문법으로 쓰이는 한편 나중에는 차츰 평서법에도 원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방언의 서술어에서 존대법체계상의 ‘ㅎ라체’(하대)와 ‘ㅎ여체’(평대)는 있는데, ‘흡서체’(존대)가 없어서, 이 ‘흡서체’의 어미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조 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형성되어 나온 어미가 이 ‘ㅎ여체’나 ‘ㅎ라체’ 어미에 /-마씀/형태를 첨부시켜 ‘흡서체’(존대) 즉 「대자존대」의 형태로 전용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또 한 가지는, 근대어·현대어로 내려오면서 존대법은 주체존대, 객체존대보다도 장면에 응하여 상대자를 존대하는 「대자존대법」을 훨씬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점에서 또 하나의 「대자존대법」을 표시할 형태를 형성시켜 나오게 된 것이며, 거기에 이 /-마씀/을 전용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현평효(1977)의 흡서체의 구조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ㅎ여체나 ㅎ라체 어미에 ‘-마씀’ 형태를 첨부시켰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앞서 (38) ㄱ과 ㄴ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마씀’은 ㅎ여체에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ㅎ라체에는 ‘-마씀’이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 된다. 즉 ‘ㅎ여마씀’은 가능하지만 ‘ㅎ라마씀’은 결합상 제약이 따르게 된다. 흡서체의 구멍 메우기라고 한다면 ㅎ라체에 제약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씀’은 비격식체로써 ‘-우-/-수-’ ‘-읍-/-ㅁ-’이 결합된 격식체 형태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주 방언에 활용되는 ‘-마씀’은 표준어 비격식체인 ‘해체’에 ‘요’가 결합되어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듯이 ‘ㅎ여체’에 ‘-마씀’이 결합되어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여 ‘히려마씀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격식성]과 [-격식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 체계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우-, -읍-/-ㅂ-’가 사용되면 [+존대] [+격식성]을 지닌 흡서체로,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면 [+존대] [-격식성]을 지닌 려여마씀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존대 표지가 없고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될 수 없으면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닌 혀라체로, 존대 표지가 없고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 가능한 형태면 [-존대] [-격식성]을 지닌 려여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 체계는 [+격식성]자질을 지닌 흡서체, 혀라체와 [-격식성]자질을 지닌 려여마씀체, 려여체의 4등급 체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제4장. 높임 등급과 문장 서법에 따른 어미 양상

화자는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 의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낸다.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평범하게 진술할 수도 있고 청자에게 자신이 알고 싶은 점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자에게 화자 자신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며 특정 장면에서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듯 문장 종결 유형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sup>18)</sup> 등으로 문장을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장 종결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에 따른 어미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 흡서체의 어미 양상

제주 방언의 흡서체는 용언의 어간에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수-’, ‘-읍-/-ㅂ-’ 등이 결합되어 [+존대]와 [+격식성]의 자질이 부여된 상대높임 등급 체계로 서법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가 사용된다.

#### 4.1.1. 평서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술하기 위해 그에 맞는 어미를 사용하는데, 이를 흡서체의 평서형 어미라고 한다. 이러한 평서형 어미로 ‘-수께, -우께, -ㅂ니께, -읍니께, -ㅂ네다, -읍네다, -ㅂ니다,

18) 감탄문은 청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청자가 있더라도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유형이므로 여기에서는 감탄문에 대한 어미 활용 양상을 제외하기로 하겠다.

-읍니다, -비데다, -읍데다, -읍디다, -쿠다' 등이 사용된다.

(40)ㄱ. 영희 지레가 질 족수계.

(영희의 키가 제일 작습니다.)

ㄴ. 철순 공부 잘 흡니께.

(철수는 공부를 잘 합니다.)

ㄷ. 가인 밥 잘 먹읍네다.

(그 아이는 밥을 잘 먹습니다.)

(40)ㄱ~ㄷ의 예는 직설법에서 쓰이는 흡서체의 종결어미 형태들이다. (40)ㄱ의 '족수계'는 족-(용언의 어간)+-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계(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0)ㄴ의 '흡니께'는 흡-(용언의 어간)+-비-(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니-(현재시제 선어말어미)+-께(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40)ㄷ의 '먹읍네다'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40)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서 직설법에 쓰인 어미 형태를 정리하면 '-수계, -우께, -비니께, -읍니께, -비네다, -읍네다, -비니다, -읍니다'이며, 이를 다시 분석하면 흡서체에 쓰인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는 '-계, -께, -다'임을 알 수 있다.

(41)ㄱ. 가인 밧더래 갑데다.

(그 아이는 밧으로 가던데요.)

ㄴ.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읍디다.

(그 사람들도 밥을 잘 먹던데요.)

(41)ㄱ과 ㄴ의 예는 회상법에서 쓰이는 흡서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41)ㄱ의 '갑데다'는 가-(용언의 어간)+-비-(상대높임 선어말어미)+-데-(과거회상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41)ㄴ의 '먹읍디다'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디-(과거회상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0)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흡서체의 직접법 종결어미 형태로 ‘-수게, -우게, -디니게, -옵니게, -디네다, -옵네다, -디니다, -옵니다’ 등이 쓰이는 반면에 (41)의 회상법 종결어미 형태는 ‘-디네다, -옵네다, -디디다, -옵디다’로 ‘-다’ 종결형이 사용될 뿐이다. 회상법에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수-’의 결합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2장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습(습)’의 변화 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다, -수다’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와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2)ㄱ. 그 사람이 일 잘 하쿠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것 같습니다.)

ㄴ. 날은 비 오쿠다게.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42)ㄱ과 ㄴ의 예는 추측법에서 쓰이는 흡서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42)ㄱ의 ‘하쿠다’는 하-(용언의 어간)+-크-(추측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42)ㄴ의 ‘오쿠다게’는 오-(용언의 어간)+-크-(추측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게(강조 보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42)ㄱ과 ㄴ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추측법에서 흡서체 종결어미로 ‘-쿠다’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2)ㄴ의 ‘오쿠다게’에서 ‘-게’는 (40)ㄱ의 ‘족수게’의 ‘-게’와 문법적 성질의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ㄴ의 ‘-게’는 ‘오쿠다’와 같이 문장이 종결된 후에 붙어서 앞에 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보조사 역할을 하지만 (40)ㄱ ‘족수게’의 ‘-게’는 ‘족수-’와 같이 종결되지 않은 문장에 ‘-게’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문장 종결이 이뤄짐을 볼 때 (40)ㄱ의 ‘-게’는 평서형 종결어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42)ㄴ의 ‘-게’는 이와 다르게 문장이 종결된 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강조 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43) 이젤랑 집이 가쿠다.

(이제는 집에 가겠습니다.)

(43)의 예는 의도법에 쓰이는 홑서체 종결어미 형태로 ‘가쿠다’는 가-(용언의 어간)+-크-(의도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도법 종결어미로 ‘-쿠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2)에서 제시된 추측법 종결어미 형태인 ‘-쿠다’와 동일한 형태로 서법상 통용이 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쿠다’는 담화 맥락에 따라 추측법의 ‘-쿠다’와 의도법의 ‘-쿠다’로 구별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40)~(43)에서 논의된 평서형 어미의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9> 평서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홑서체	-수게/-우게 -디니께/-읍니께 -디네다/-읍네다 -디니다/-읍니다	-디 데다/-읍데다 -디 디다/-읍디다	-쿠다	-쿠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홑서체의 평서형 어미를 서법에 따라 정리하면 직설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로 ‘-게, -께, -다’가 사용되고, 이 외에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로 ‘-다’가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홑서체에 사용되는 평서형 종결어미인 ‘-게, -께, -다’는 그 앞에 나타나는 형태소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모든 서법에 사용되는 ‘-다’를 평서형 종결어미의 기본 형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1.2. 의문형 어미

제주 방언의 흡서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묻거나 긍정 및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형 어미로 ‘-수가, -네까, -니까, -데가, -디가, -쿠가’ 등이 사용된다.

(44) ㄱ. 영희 지레가 질 족수가?

(영희의 키가 제일 작습니까?)

ㄴ. 철순 공부 잘 흡네까?

(철수는 공부를 잘 합니까?)

ㄷ. 가인 밥 잘 먹습니까?

(그 아이는 밥을 잘 먹습니까?)

(44) ㄱ의 ‘족수가’는 족-(용언의 어간)+-수-(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4) ㄴ의 ‘흡네까’는 흡-(용언의 어간)+-네-(상대높임 선어말어미)+-네-(현재시제 선어말어미)+-까(의문형 종결어미)로, (44) ㄷ의 ‘먹습니까’는 먹-(용언의 어간)+-습-(상대높임 선어말어미)+-니-(현재시제 선어말어미)+-까(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4) 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 직설법에 쓰인 어미 형태를 정리하면 ‘-수가, -우까, -습네까, -네까, -습니까, -니까’이며 이를 다시 분석하면 흡서체에 쓰인 직설법의 종결어미 형태로 ‘-가, -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ㄱ. 가인 밧더레 갑데가?

(그 아이는 밧으로 가던가요?)

ㄴ.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습디가?

(그 사람들도 밥을 잘 먹던가요?)

(45) ㄱ과 ㄴ의 예는 의문문에서 회상의 의미를 지니는 흡서체 종결어미 형태이

다. (45)ㄱ의 ‘갑데가’는 가-(용언의 어간)+-ㅅ-(상대높임 선어말어미)+-데-(과거 회상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45)ㄴ의 ‘떡읍디가’는 떡-(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디-(과거회상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4)ㄱ~ㄷ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의문문에서 직설법 종결어미 형태로 ‘-수가, -(이)우까, -읍네까, -ㅅ네까, -읍니까, -ㅅ니까’ 등의 여러 형태가 쓰이는 반면 (45)의 회상법 종결어미 형태는 ‘-읍데가, -ㅅ데가, -읍디가, -ㅅ디가’로 ‘-가’ 종결형이 사용될 뿐이다.

(46)ㄱ. 그 사람은 일 잘 흐쿠가?

(그 사람은 일을 잘 하겠습니까?)

ㄴ. 널 비 오쿠가?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까?)

(46)ㄱ과 ㄴ의 예는 의문문에서 추측의 의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장면으로 흡서체에 나타나는 추측법 종결어미 형태이다. (46)ㄱ의 ‘흐쿠가’는 흐-(용언의 어간)+-크-(추측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46)ㄴ의 ‘오쿠가’는 오-(용언의 어간)+-크-(추측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각각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추측법의 종결어미 형태로는 ‘-가가 쓰임을 알 수 있다.

(47) 이젤랑 집이 가쿠가?

(이제는 집에 가겠습니까?)

(47)의 예는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포함하여 묻는 발화 장면으로 흡서체의 의도법 종결어미 형태이다. (47)의 ‘가쿠가’는 가-(용언의 어간)+-크-(의도형 선어말어미)+-우-(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의도법 종결어미 형태로 ‘-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44)~(47)에서 논의된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10>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10> 의문형 어미 형태

서법 등급체계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흡서체	-수가/-(이)우까 -니까/-읍니까 -네까/-읍네까	-데가/-읍데가 -디가/-읍디가	-쿠가	-쿠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서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정리하면, 직설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로는 ‘-가, -까’가 쓰이고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로는 ‘-가’ 단독형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흡서체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가, -까’는 그 앞에 나타나는 형태소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선택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모든 서법에 사용되는 ‘-가’를 의문형 종결어미의 기본형태로 설정하고자 한다.

#### 4.1.3. 명령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도하는 의미를 지닌 명령형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읍서, -디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평서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의 양상과는 다르게 명령형 어미는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명령형 어미의 대표적 형태를 살펴보고 명령문에서 시상 선어말어미 -암-/ -엄-이 결합될 때 이와 함께 나타나는 형태소 ‘-시-’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48) ㄱ. 아버질랑 먼저 집이 갑서.

(아버지는 먼저 집에 가십시오.)

ㄴ. 맨도롱홀 때 재기 먹읍서.

(따뜻할 때에 빨리 드십시오.)

(48)ㄱ과 ㄴ의 예는 제주 방언의 홑서체 명령문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의 형태로 용언의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면 ‘-ㅂ서’가, 자음으로 끝나면 ‘-읍서’가 사용된다. (48)의 ‘갑서’는 가-(용언의 어간)+-ㅂ-(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48)ㄴ의 ‘먹읍서’는 먹-(용언의 어간)+-읍-(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홑서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는 ‘-서’<sup>19)</sup>임을 알 수 있다. 이 명령형 종결어미 ‘-서’는 중세국어의 ‘호쇼셔’체에 나타나는 ‘-셔’에서 단모음화 과정을 겪으며 반모음 y가 탈락되어 ‘-서’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49) ㄱ. 아버질랑 집에서 놀암십서.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으세요.)

ㄴ. 삼춘 먼저 먹엄십서.

(삼춘이 먼저 먹고 있으세요.)

(49)ㄱ의 ‘놀암십서’는 놀-(용언의 어간)+-암시-(시상 선어말어미)+-ㅂ-(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49)ㄴ의 ‘먹엄십서’는 먹-(용언의 어간)+-엄시-(시상 선어말어미)+-ㅂ-(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49)ㄱ과 ㄴ에서 분석된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 -엄시-’는 동작의 진행을 표시하는 진행상으로 ‘-고 있다’에 대응되는 의미를 지닌

19) 제주 방언에 쓰이는 형태소 ‘-서’는 [+존대] 자질을 지닌 홑서체에 쓰일 때와 [-존대] 자질을 지닌 호라체와 호여체에 쓰일 때 의미 차이를 지닌다. 예를 들면, ‘놀랑 지비 먼저 가서’(너는 집에 먼저 가 있어라)에서 ‘가서’를 분석해 보면 가-(용언의 어간)+-시-(완료·지속 선어말어미)+-어(명령형 종결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존대] 자질을 지닌 홑서체의 ‘-서’는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존대] 자질을 지닌 호라체, 호여체에 쓰이는 ‘-서’는 ‘-ㅂ-+ -어’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홑서체’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세국어의 ‘호쇼셔’체의 ‘-셔’가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다시 말하면 ‘-암시-, -엄시-’의 ‘-시-’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의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아니라 시상 선어말어미 ‘-암-/ -엄-’에 결합되어 ‘-암시-, -엄시-’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다음의 예에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50) ㄱ. 놀랑 집에서 놀암시라.

(너는 집에서 놀고 있어라.)

ㄴ. 아실랑 먼저 먹엄시라.

(동생은 먼저 먹고 있어라.)

(50)ㄱ과 ㄴ의 예는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장면으로 허라체에 해당된다. (50)ㄱ의 ‘놀암시라’는 놀-(용언의 어간)+-암시-(시상 선어말어미)+-라(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50)ㄴ의 ‘먹엄시라’는 먹-(용언의 어간)+-엄시-(시상 선어말어미)+-라(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형태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존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놀암시라, 먹엄시라’의 행위 주체는 ‘느(너)와 아시(동생)’로 행위 주체를 높일 상황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 -엄시-’에 결합되는 ‘-시-’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는 다른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승녕(1978:67)에서 논의하고 있는 극존칭 ‘흐십씨체’에 사용된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암시-, -엄시-’의 ‘-시-’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1) ㄱ. 아버질랑 집에서 놀암십서.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으세요.)

ㄴ. 아버질랑 집에서 노십서.

(아버지는 집에서 노십시오.)

ㄷ. 아버질랑 집에서 노서.

(아버지는 집에서 노세요.)

(51)ㄱ~ㄷ의 예는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의미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51)ㄱ의 ‘놀암십서’는 놀-(용언의 어간)+-암시-(시상 선어말어미)+-ㅁ-(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51)ㄴ의 ‘노십서’는 용언의 어간 ‘놀(다)-’가 ‘ㅁ’ 앞에서 ‘ㄹ’가 탈락된 형태인 노-(용언의 어간)+-시-(주체존대 선어말어미)+-ㅁ-(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51)ㄷ의 ‘놉서’는 놀-(용언의 어간)+-ㅁ-(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51)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들 중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언의 어간 ‘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ㅁ-’, 명령형 종결어미 ‘-서’를 제외하고 나면 (51)ㄱ에 ‘-암시-’와 (51)ㄴ에 ‘-시-’가 남게 된다. 즉, (51)ㄱ에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가 사용되어 진행상의 의미를, (51)ㄴ에 ‘-시-’가 사용되어 주체존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51)ㄱ의 ‘놀암십서’와 (51)ㄷ의 ‘놉서’는 ‘홉서체’에 해당되지만 (51)ㄴ의 ‘노십서’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삽입된 ‘흐십서체’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주 방언의 상대높임 등급체계에서 ‘홉십서체’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삽입이 육지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높임 등급체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4.1.4. 청유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 청유형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읍주, -ㅁ주’가 쓰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홉서체 청유형 어미의 형태로 ‘-읍주, -ㅁ주’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현평호(1977:17)에서는 홉서체에 쓰이는 청유형 어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1> 청유법 어미

존대법 등분	홑서체(존대)	ㅎ여체(평대)	ㅎ라체(하대)
존대법 어미	갑꺾 <sup>20)</sup> 더꺾꺾 글읍서 <sup>21)</sup>	가꺾 더꺾꺾 글어	가자 더꺾자 글라

현평효(1977)은 <표11>과 같이 제시하면서 평대나 하대의 어미에는 ‘-ㄱ-’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데, 오직 존대의 어미에만 ‘-ㄱ-’가 선택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 ‘-ㄱ-’가 존대표시의 형태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승녕(1978:60~61)에서 논의하고 있는 홑서체의 청유형 어미 형태를 밝히면 <표12>와 같다.

<표12> 청유형 어미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
(가자)	가주	갑주	가십주 (去)
(먹자)	먹주	먹읍주	먹으십주 (食)
꺾자	꺾주	꺾읍주	꺾으십주 (言)
받자	받주	받읍주	받으십주 (受)
더꺾자	더꺾주	더꺾읍주	더꺾으십주 (覆)
더꺾자	더꺾주	더꺾읍주	더꺾으십주 (蓋)
꺾자 <sup>22)</sup>	꺾주	꺾읍주	꺾으십주 (步)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승녕(1978)에서는 제주 방언의 등급체계를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으로 분류하면서 육지어의 영향으로 쓰이는 주체존대 선어말

20) 현평효(1977)에서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를 ‘-꺾’ 형태로 서술하고 있지만 현평효(1985)에서는 ‘-암주, -앗주’ 등으로 서술하고 있고, 실제 제주 토박이 화자들도 ‘갑꺾, 가꺾, 더꺾꺾, 더꺾꺾’ 보다는 ‘갑주, 가주, 더꺾주, 더꺾주’로 발화하는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를 ‘-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21) 현평효(1977)에서는 ‘글읍서’를 청유형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글읍서’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홑서체에 나타나는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는 주로 ‘-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글읍서’ 대신에 ‘글읍주’로 보고자 한다.

22) 이승녕(1978)에서는 ‘꺾자’, ‘꺾주’와 같이 용언의 어간 발음을 ‘ㅅ’로 표기하고 있으나, ‘꺾자’가 꺾으라, 꺾읍주, 꺾으십주와 같이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꺾자’, ‘꺾주’는 ‘꺾자’, ‘꺾주’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꺾다’가 어미 활용 시에 ‘꺾고, 꺾어, 꺾으니, 꺾읍주, 꺾으십주’와 같이 용언의 어간 발음 ‘ㄷ’가 ‘ㄹ’로 바뀌는 ‘ㄷ’불규칙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미 ‘-시-’ 삽입 형태인 극존칭을 설정한 것이 현평효(1977)과 다른 점이다.

결국 <표11>과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유형 문장에서 청자에게 [+존대] 자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읍주, -ㅂ주’를 선택하여 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청유형 어미 ‘-읍주, -ㅂ주’가 [+존대]자질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더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52) ㄱ. \*아버지, 이젤랑 집이 갑주.

(\*아버지, 이제는 집에 가게.)

ㄴ. 아버질랑 먼저 집이 갑서.

(아버지는 먼저 집에 가세요.)

(52)ㄱ의 예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자신과 함께 행동하기를 권유하는 청유형 발화이며, (52)ㄴ은 청자인 아버지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명령형 발화이다. (52)ㄱ의 ‘갑주’는 가-(용언의 어간)+-ㅂ-(주관적 의도 선어말어미)+-주(청유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52)ㄴ의 ‘갑서’는 가-(용언의 어간)+-ㅂ-(상대높임 선어말어미)+-서(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52)ㄱ과 ㄴ에서 분석한 형태소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52)ㄴ의 ‘-ㅂ-’는 [+존대]자질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52)ㄱ은 청자를 높여 발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이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이 되어, (52)ㄱ의 ‘-ㅂ-’는 [+존대]자질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52)ㄱ ‘갑주’의 ‘-ㅂ-’가 [존대]자질이 사라진 이유는 청유형 문장이 화자를 포함하여 청자와 함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화자 자신을 낮춰 발화함으로써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ㅂ-’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높임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2)ㄱ을 적절한 문장으로 고치려면 문장 끝에 높임 보조사 ‘-마씀’을 결합하여 ‘이젤랑 지브 갑주마씀’ 혹은 ‘이젤랑 지브 가주마씀’으로 발화하면 된다. 실제로 제주 토박이 화자들은 나이가 비슷한 청자에게만 청유형 어미 ‘-읍주, -ㅂ주’를 활용하여 권유의 의미를 드러내며, [+존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마씀’을 활용하여 ‘-읍주마씀, -ㅂ주마씀’을 사용한다.

현평효(1977:19)에서는 이를 두고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읍-/ㄴ-’와 ‘-마씀’이 쓰여 이종의 상대 존대법이 사용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발화 장면을 살펴 보면 ‘-읍주, -ㄴ주’에 쓰인 ‘-읍-, -ㄴ-’가 상대높임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53)ㄱ. 나가 밧더레 갑주. 느넬랑 집이서 쉬엄시라.

(내가 밧으로 가야지. 너희들은 집에서 쉬고 있어라.)

ㄴ. 나가 밧더레 가주. 느넬랑 집이서 쉬엄시라.

(내가 밧으로 가지. 너희들은 집에서 쉬고 있어라.)

(53)ㄱ과 ㄴ의 예는 비슷한 연배나 친구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발화 장면이다. (53)ㄱ의 ‘갑주’는 표준어로 ‘가야지’로, (53)ㄴ의 ‘가주’는 표준어로 ‘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53)ㄱ은 (53)ㄴ의 문장과 다르게 ‘가주’에 ‘-ㄴ-’를 삽입하여 ‘갑주’로 발화하였다고 해서 홑서체의 [+존대]자질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53)ㄱ의 화자는 ‘나’이며 청자는 ‘느네’(너희)로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갑주’에 삽입된 ‘-ㄴ-’는 상대높임의 기능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갑주’로 발화함으로써 화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주관적 의도가 ‘가주’보다 강조될 뿐이다. 따라서 (52)ㄱ과 (53)ㄱ ‘갑주’의 ‘-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 의도 및 느낌의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1인칭 화자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을 고려한다면 (53)ㄱ과 ㄴ의 문장은 청유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53)ㄱ과 ㄴ은 청자와 함께 행동하기를 권유하는 의미의 발화가 아니라 화자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진술하는 발화이므로 평서형 문장으로 쓰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로써 청유형 종결어미로 논의되고 있는 ‘-주’는 청유문뿐만 아니라 평서문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53)ㄱ과 ㄴ을 통해 밝힌 셈이며, 더 나아가 ‘-주’는 의문문, 명령문에도 두루 쓰일 수 있음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ㄱ. 이젤랑 자네 하던 일 끝냅주?

(이제는 자네가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가?)

ㄴ. 자넨랑 먼저 갑주.

(자네는 먼저 가게.)

(54)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문형 문장이며, (54)ㄴ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권유하는 명령형 문장이다. 따라서 ‘-주’는 청유형 종결어미 쓰임뿐만 아니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의 문장 종결법에 두루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논의했던 ‘-읍주, -ㅂ주’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주’와 결합된 ‘-읍-, -ㅂ-’는 [+존대]자질이 약화되면서 높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흡서체로 분류한 기존의 견해는 재조정되어, ‘-읍주, -ㅂ주’를 표준어 하계체 높임 등급 정도로 보아야 하며, ‘-주’와 결합된 ‘-읍-, -ㅂ-’를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로 분석하던 기존의 견해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 및 느낌의 선어말어미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에서도 청유형 문장에서는 아주 높임표현인 하십시오체를 설정하지 않고 그 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하오체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유형 종결어미로 논의되어 온 ‘-주’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의 문장 종결법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보아 ‘-주’를 청유형 종결어미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 4.2. ㅎ라체의 어미 양상

제주 방언의 ㅎ라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수-’, ‘-ㅂ-/-읍-’ 이나 높임보조사 ‘-마썸’의 결합없이 반말체 어미로 종결되어 [-존대]자질을 지니며, [+격식성]이 부여된 상대높임 등급 체계로 문장 종결법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가 사용된다.

#### 4.2.1. 평서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술하기 위해 평서형 어미 ‘-니다, -나, -느네, -아라/-어라, -아고/-어고, -더라, -라라, -키여, -려, -서’ 등을 사용한다.

(55) ㄱ. 영희 지레가 질 족느네.

(영희의 키가 제일 작다.)

ㄴ. 철순 공부 잘 한다.

(철수가 공부를 잘 한다.)

ㄷ. 가인 밥 잘 먹나.

(그 아이는 밥을 잘 먹는다.)

(55) ㄱ~ㄷ의 예는 직설법에 나타나는 호라체의 종결어미 형태들이다. (55) ㄱ의 ‘족느네’는 족-(용언의 어간)+-느-(직설법 선어말어미)+-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55) ㄴ의 ‘한다’는 하-(용언의 어간)+-ㄴ-(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55) ㄷ의 ‘먹나’는 먹-(용언의 어간)+-ㄴ-(현재시제 선어말어미)+-아(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55) ㄱ에서 분석한 형태소 ‘-네’를 현평호(1985:108)에서는 ‘먹엄시네, 보아시네’와 같이 주로 동작상의 형태들과 함께 사용되며, 형태소 ‘-네’는 직설법 선어말어미 ‘-니-’와 평서형 종결어미 ‘-에’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는 동작상에서뿐만 아니라 ‘먹느네, 가느네, 줍느네, 크느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에도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또한 ‘-네’는 용언의 어간에 단독으로 결합되지 않고 반드시 직설법 형태소 ‘-느-’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만약 ‘-네’를 ‘-니-’와 ‘-에’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하면 (55) ㄱ의 ‘족느네’는 직설법 형태소가 ‘-느-’와 ‘-니-’가 되어 직설법이 중첩된다. 따라서, ‘-네’를 ‘-니-’와 ‘-에’의 두 형태소로 분석하기보다는 ‘-네’를 단독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55) 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 직설법에 쓰인 어미 형태를 정리하면 ‘-느

네, -ㄴ다, -나'이며, 이를 다시 분석하면 흐라체에 쓰인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는 '-네, -다, -아'임을 알 수 있다.

(56) ㄱ. 가인 밧더래 가더라.

(그 아이는 밧으로 가더라.)

ㄴ.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어라.

(그 사름들도 밥 잘 먹더라.)

ㄷ. 그거 느네 집이 췌라라.

(그것은 너희 집의 소이더라.)

(56) ㄱ~ㄷ의 예는 회상법에 쓰이는 흐라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56) ㄱ의 '가더라'는 가-(용언의 어간)+-더-(과거회상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56) ㄴ의 '먹어라'는 먹-(용언의 어간)+-어-(과거회상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56) ㄷ의 '췌라라'는 췌-(체언)+-라-(과거회상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56) ㄱ~ㄷ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과 체언을 분리하면, 회상법에 쓰이는 흐라체 선어말어미 형태로 '-더-, -어-, -라-'<sup>23)</sup>가 남고, 이 뒤에 평서형 종결어미 '-라'가 결합되고 있다. 즉, 제주 방언에서 흐라체에 쓰이는 회상법 어미 형태는 '-더라, -어라, -(이)라라'이며, 회상법에 사용되는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라'가 쓰임을 알 수 있다.

(57)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어고.

(그 사름들도 밥을 잘 먹더라.)

(57)의 '먹어고'는 회상법에 쓰이는 흐라체 종결어미 형태인데, 현평효(1985:107~109)에서는 흐여체 평서형 어미로 분류하고 있어 '-아고/-어고'가 흐라체 종결어

23) 정승철(2013:177)에서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라-'는 앞말이 계사 '이-'이거나 의도 또는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일 때에는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아-/-어-'가 '-라-'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형태임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56)ㄴ의 ‘먹어라’와 (57) ‘먹어고’의 발화 장면에서 어느 문장이 더 높임의 자질이 포함되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57)의 ‘먹어고’를 호여체로 분류한다면 ‘호여마씀’과 같이 ‘-마씀’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상대높임의 자질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데, (57)의 ‘먹어고’는 ‘-마씀’을 결합하여 ‘\*먹어고마씀’은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로 (57) ‘먹어고’의 어미인 ‘-어고’를 호라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호라체 회상법에 사용되는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56)ㄱ~ㄴ에서 분석된 ‘-라’와 (57)에서 분석된 ‘-고’가 쓰임을 알 수 있다.

(58) ㄱ. 그 사람이 일 잘 호키여.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겠다.)

ㄴ. 날은 비 오켜.

(내일은 비가 오겠다.)

(58)ㄱ과 ㄴ의 예는 추측법에 쓰이는 호라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57)ㄱ의 ‘호키여’는 호-(용언의 어간)+-키-(추측형 선어말어미)+-여(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57)ㄴ의 ‘오켜’는 오-(용언의 어간)+-키-(추측형 선어말어미)+-어(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형태소를 살펴보면 (58)ㄱ의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는 ‘-여’로, (58)ㄴ은 ‘-어’로 나타난다. 현평호(1985:108)에서는 추측법에 쓰이는 어미 ‘-키여’를 ‘-키-’와 ‘-여’로 분석하면서 ‘-키-’는 추측 혹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형태이며, ‘-여’는 긍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평서법 어미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형태는 음운적 환경에 따라 ‘-아/-어’가 선택되어 쓰이며, ‘-하다’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만 ‘-여’가 쓰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58)ㄱ의 ‘호키여’에서 분석된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는 ‘-여’가 아니라 ‘-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어’ 형태가 ‘ㅣ’ 모음 뒤에서 ‘-여’로 발음되는 일종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sup>24)</sup>으로 ‘-어’가 ‘-여’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이진호(2014:186~187)에서는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단모음과 단모음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흐라체 종결어미 형태를 ‘-여’가 아니라 ‘-어’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58)ㄱ과 ㄴ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분리하면 추측법에 쓰이는 흐라체 어미 ‘-키어’가 남게되며 이를 다시 분석하여 종결어미 형태를 밝히면 ‘-어’가 된다. 즉, 제주 방언에서 흐라체에 쓰이는 추측법 종결어미 형태는 ‘-어’임을 알 수 있다.

(59) ㄱ. 이젤랑 집이 가켜.

(이제는 집에 가겠다.)

ㄴ. 이걸랑 나가 먹저.

(이것은 내가 먹겠다.)

(59)ㄱ과 ㄴ의 예는 의도법에 쓰이는 흐라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59)ㄱ의 ‘가켜’는 가-(용언의 어간)+-키-(의도법 선어말어미)+-어(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59)ㄴ의 ‘먹저’는 먹-(용언의 어미)+-지-(의도법 선어말어미)+-어(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현평효(1985:108)에서는 (59)ㄴ의 어미 ‘-저’를 화자의 의도, 의욕을 표시하는 ‘-즈-’와 평서평 어미 ‘-어’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평효(1985:108)에서 분석하고 있는 ‘-즈-’의 본래 형태는 앞서 (59)ㄴ에서 분석한 의도법 선어말어미 형태소 ‘-지-’로 보아야 한다. ‘-지어’가 모음축약 현상에 의해 ‘-저’가 되고, 이는 다시 경구개음 ‘ㅈ, ㅊ, ㅍ’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을 겪음으로써 ‘-저’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y-탈락현상<sup>25)</sup>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용언의 활용형이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예로 ‘가지

이 연속해서 배열되면 모음들이 서로 충돌하는데, 이러한 모음 충돌을 흔히 히아투스라고 부른다. 모음충돌 현상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므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음충돌 회피현상이 존재한다. ①축약현상(아이→애), ②탈락현상(크+ 어도→커도), ③대치현상(배우+ 어도→배워도), ④첨가현상(피+ 어서←[피여서]) 등으로 나타난다.

제주 방언에 ‘히키어’가 [히키여]로 발음되는 현상은 모음충돌 회피현상 중에 첨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준발음법에서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되어, 피어’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5) 이진호(2014:204)에서는 y-탈락은 경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경구개음 ‘y’는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나란히 놓이면 그 성질이 중복됨으로써 뒤에 오는 ‘y’가 탈락하게 되며, ‘ㅈ, ㅊ, ㅍ’이 경구개음이 아닌 이전 시기에는 그 뒤에 ‘y’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었지만, ‘ㅈ, ㅊ, ㅍ’이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면서 y-탈락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가져[가져], 찌어⇒찌[찌], 다치어→다쳐[다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59)ㄱ과 ㄴ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분리하면, 의도법에 쓰이는 흐라체 어미 ‘-키어, -지어’가 남게 되고, 이를 다시 분석하여 종결어미의 형태를 밝히면 ‘-어’가 되는 것이다. 즉, 제주 방언에서 흐라체에 쓰이는 의도법 종결어미 형태로 ‘-어’가 쓰임을 알 수 있다.

(55)~(59)에서 논의된 흐라체의 평서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 1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3> 평서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흐라체	-느네 -ㄴ다 -나	-더라 -아라/-어라 -(이)라라	-키어	-키어 -지어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흐라체의 평서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정리하면 직설법에 어미 ‘-느네, -ㄴ다, -나’가, 회상법에 ‘-더라, -아라/-어라, -(이)라라’가, 추측법에 ‘-키어’, 의도법에 ‘-키어, -지어’가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여기에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어미를 제외하면 흐라체에 사용되는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직설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 ‘-네, -다, -아’가, 회상법에 ‘-라’가, 추측법과 의도법에 ‘-어’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4.2.2. 의문형 어미

제주 방언의 흐라체에서 화자가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화자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묻거나 긍정 및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형 어미로 ‘-느냐, -느네, -(으)냐, -더냐, -아냐/-어냐, -라냐, -라네, -크냐, -크니, -르다, -르타, -르디, -르티, -르레’ 등이 사용된다.

(60) 가. 영희 지레가 질 죽느냐?

(영희의 키가 제일 작니?)

나. 철순 공부 잘 하느냐?

(철수는 공부를 잘 하니?)

다. 가인 밥 잘 먹(으)냐?

(그 아이는 밥을 잘 먹니?)

(60) 가~다의 예는 직설법에 쓰이는 ᄒ라체 의문형 어미 형태로 (60) 가의 ‘죽느냐’는 죽-(용언의 어간)+-느-(직설법 선어말어미)+-냐(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60) 나, 다의 ‘하느냐’, ‘먹(으)냐’는 하-(용언의 어간)+-느-(직설법 선어말어미)+-네(의문형 종결어미)로, (60) 다의 ‘먹(으)냐’는 먹-(용언의 어간)+-(으)니-(직설법 선어말어미)+-아(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0) 가~다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제외하면, 어미 ‘-느냐, -느네, -(으)니아’가 남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어미 형태소에서 직설법 선어말어미 ‘-느-’와 ‘-니-’를 분리하면 결국 직설법에 연결되는 의문형 종결어미 ‘-냐, -네, -아’가 쓰임을 알 수 있다.

(61) 가. 가인 밧더레 가더냐?

(그 아이는 밧으로 가더냐?)

나.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어냐?

(그 사람들도 밥을 잘 먹더냐?)

다. 그거 누게 집이 췌라냐?

(그것은 누구 집의 소이더냐?)

르. 그거 느네 집이 췌라네?

(그것은 너희 집의 소이더냐?)

(61) 가~르의 예는 회상법에 쓰이는 ᄒ라체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61) 가의 ‘가더냐’는 가-(용언의 어간)+-더-(회상법 선어말어미)+-냐(의문형 종결어미)로 분

석되며, (61)ㄴ의 ‘먹어나’는 먹-(용언의 어간)+-어-(회상법 선어말어미)+-냐(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1)ㄷ의 ‘쉐라냐’는 췌(체언)+-(이)라-(회상법 선어말어미)+-냐(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61)ㄹ의 ‘쉐라네’는 췌(체언)+-(이)라-(회상법 선어말어미)+-네(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1)ㄱ~ㄹ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회상법 선어말어미 ‘-더-, -아-/-어-, -(이)라-’와 결합되는 ᄒ라체 의문형 종결어미의 형태로 ‘-냐, -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61)ㄱ~ㄷ와 같이 의문형 어미 ‘-냐’로 문장이 종결될 때는 사용상에 제약이 없는데, (61)ㄹ와 같이 ‘-네’로 문장이 종결될 때는 [+확인성]자질일 때에 한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62)ㄱ. 그 사람은 일 잘 ᄒ크냐?

(그 사람은 일을 잘 하겠니?)

ㄴ. 널 비 오크냐?

(내일은 비가 올까?)

(62)ㄱ과 ㄴ의 예는 의문문에서 추측의 의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장면으로 ᄒ라체에 나타나는 추측법 어미 형태이다. (62)ㄱ의 ‘ᄒ크냐’는 ᄒ-(용언의 어간)+-크-(추측법 선어말어미)+-냐(의문형 종결어미)로, (62)ㄴ의 ‘오크냐’는 오-(용언의 어간)+-크-(추측법 선어말어미)+-니(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1)ㄱ과 ㄴ에서 분석한 어미 형태소 중에 회상법 선어말어미 -크-를 제외하면, ᄒ라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냐, -니’가 제주 방언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형 종결어미 ‘-냐’로 끝나는 문장은 주로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묻거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발화에 쓰이는 반면에 ‘-니’로 끝나는 문장은 그 문장과 관련된 사실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추측하며 독백조로 화자 자신 혹은 청자에게 묻는 발화에 쓰인다.

(63) ㄱ. 이젤랑 집이 갈디아(갈다)?

(이제는 집에 가겠니?)

ㄴ. 느도 학교에 갈티아(갈타)?

(너도 학교에 가겠니?)

ㄷ. 느영 나영 혼디 손심영 갈레?

(너와 나하고 함께 손을 잡고서 가겠니?)

(63)ㄱ~ㄷ의 예는 의도법에 쓰이는 ㅎ라체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63)ㄱ의 ‘갈디아’는 가-(용언의 어간)+-ㄹ-(의도법 선어말어미)+-디아(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63)ㄴ의 ‘갈티아’는 가-(용언의 어간)+-ㄹ-(의도법 선어말어미)+-티아(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63)ㄷ의 ‘갈레’는 가-(용언의 어간)+-ㄹ-(의도법 선어말어미)+-레(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63)ㄱ~ㄷ에서 분석한 형태소를 살펴보면, 의도법 선어말어미 ‘-ㄹ-’와 결합되는 ㅎ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디아, -티아, -레’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3)ㄱ과 ㄴ의 ‘-디아, -티아’는 음운의 축약 현상으로 ‘-다, -타’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의문형 종결어미 ‘-티아’는 ‘-디아’의 음운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결과로 추정된다. 즉, 관형사형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갈디아’는 [갈띠아]로 발음되고 된소리로 발음된 [-띠아]는 격음화<sup>26)</sup>현상을 거쳐 [-티아]로 형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문형 종결어미 ‘-티아’형태는 된소리 발음이 가능한 음운 환경인 관형사형 자질을 지닌 ‘-ㄹ’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티아’가 이러한 음운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26) 이승녕(1978:10)에서는 어두자음군이었던 ‘ㅼ, ㅼ’는 ‘ㅌ, ㅌ’로 격음으로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15세기 문헌	제주도 방언
따다(摘)	타다
딸기(莓)	탈
떡(垢)	테
뜨다(浮·開)	트다
쯔다(織)	츠다
쯔(隻)	착

이 외에도 제주 방언에서는 ‘뜯다’를 ‘틀다’로 ‘이쪽저쪽’을 ‘이착저착’ 등으로 된소리 발음이 격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로 볼 수 있다.

<표14> 의문형 어미 ‘-티아’의 결합 환경

오란디아? *오란티아?	오람디아? *오람티아?	올디아? 올티아?
간디아? *간티아?	감디아? *감티아?	갈디아? 갈티아?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된소리 환경이 가능한 ‘올디아, 갈디아’는 ‘올티아, 갈티아’로 형태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외에 \*오란티아, \*오람티아, \*간티아, \*감티아’는 자연스럽게 않은 발화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흐라체에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어미는 ‘-디아’를 기저형으로 보고 ‘-티아’는 ‘-디아’의 표면형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64) ㄱ. 영 간새흐영 는 쟁 뭐 흘디?

(이렇게 게을러서 너는 자라서 무엇을 하겠니?)

ㄴ. 영 놀앙 일은 어느제랑 흘티?

(이렇게 놀아서 일은 언제면 하겠니?)

(64)ㄱ과 ㄴ의 예는 (63)ㄱ~ㄴ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의도법에 쓰이는 흐라체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64)ㄱ의 ‘흘디’는 흐-(용언의 어간)+-르-(의도법 선어말어미)+-디(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64)ㄴ의 ‘흘티’는 흐-(용언의 어간)+-르-(의도법 선어말어미)+-티(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어미 형태소를 (63)ㄱ과 ㄴ의 형태소와 비교해 보면, (63)ㄱ과 ㄴ의 ‘-르디아<sup>27)</sup>,

27) 고통호·송상조·오창명·문순덕·오승훈(2015:193)에서는 ‘-(으)르디-’를 다음과 같이 예를 제시하며 하나의 형태소로 서술하고 있다.

예) 느도 학교 갈디아?(너도 학교 가겠느냐?)  
 ‘갈디아’의 -(으)르 디-에는 표준어 -겠-의 뜻이 있다. ‘-(으)르디’를 관형사형 ‘-(으)르’과 ‘디’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으)르디’가 2인칭에만 쓰이고, 대응되는 뜻이 ‘-겠-’이므로 선어말어미로 보았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르디아’는 ‘-르+-디아’와 같이 두 형태소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의도법 선어말어미 ‘-르-’에는 -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4)ㄱ과 ㄴ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디, -티’는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르디-’를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면 (64)ㄱ과 ㄴ은 선어말 어미로 문장이 종결되어 자연스럽게 않은 문장이 된다.

-르티아'에서 '-아'가 탈락된 형태인 '-르디, -르티'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의 탈락은 단순히 종결어미의 형태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의 쓰임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의문형 종결어미 '-디아, -티아'가 쓰이면 설명의문문과 관정 의문문의 쓰임에 제약이 없는데 반해 '-아'가 탈락된 형태인 '-디, -티'는 관정의문문에는 쓸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앞서 논의되었던 (63)과 (64)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제외하면, 어미 '-르디아, -르티아, -르레, -르디, -르티'가 남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형태소 중에 의도법 선어말어미 '-르-'을 분리하면, 결국 의도법에 연결되는 의문형 종결어미 '-디아(-다), -티아(-타), -레, -디, -티'가 쓰임을 알 수 있다.

(60)~(63)에서 논의된 ᄇ라체 의문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 1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5> 의문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ᄇ라체	-느냐 -느네 -(으)냐	-더냐 -아냐/-어냐 -라냐 -라네	-크냐 -크니	-르다 -르타 -르레 -르디 -르티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ᄇ라체의 의문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정리하면 직설법에 어미 '-느냐, -느네, -(으)냐'가, 회상법에 '-더냐, -아냐/-어냐, -라냐, -라네'가, 추측법에 '-크냐, -크니'가, 의도법에 '-르다, -르타, -르레, -르디, -르티'가 사용됨을 살필 수 있다. 여기에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 어미를 분리하면 직설법에 쓰이는 종결어미로 '-냐, -네, -아'가, 회상법에 '-냐, -네'가, 추측법에 '-냐, -니'가, 의도법에 '-디아(다), -티아(-타), -레, -디, -티'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4.2.3. 명령형 어미

화자가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도하는 의미를 지닌 어미를 호라체의 명령형 어미라 한다. 이러한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라, -으라, -암시라/-엄시라, -아시라/-어시라’가 있다.

(65) ㄱ. 늘랑 먼저 집이 가라.

(너는 먼저 집에 가라.)

ㄴ. 맨도롱홀 때 재기 먹으라.

(따뜻할 때에 빨리 먹어라.)

(65)ㄱ과 ㄴ의 예는 호라체 명령문에서 쓰이는 종결어미 형태이다. (65)ㄱ의 ‘가라’는 가-(용언의 어간)+-라(명령형 어미)로 분석되고 (65)ㄴ의 ‘먹으라’는 먹-(용언의 어간)+-(으)라(명령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용언의 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면 ‘-라’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으라’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준어에서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사용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제주 방언의 호라체에 나타나는 명령형 어미 ‘-라/-으라’는 특이한 형태이며 이러한 명령형 어미 ‘-라/-으라’ 형태는 표준어에서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간접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sup>28)</sup>

(65)ㄱ과 ㄴ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떼어내면 명령형 어미 ‘-라, -으라’가 남게 되므로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호라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는 ‘-라, -으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으라’에서 ‘-으-’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개재된 매개모음<sup>29)</sup>으로 본다면 호라체 명령형 종결어미의 형태는 ‘-라’로

28) 표준어에서 ‘-라/-으라’는 ‘-아라/-어라’를 사용할 자리에 쓰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동사의 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면 ‘-라’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으라’가 결합된다.

29) 이진호(2014:202)에서는 매개모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으-탈락의 적용을 받는 어미, 즉 ‘-’로 시작하는 어미를 흔히 매개 모음 어미라고 부른다. 매개 모음 어미에는 ‘-으니, -으면, -은, -을’등이 있다. 매개 모음 어미는 앞선 형태소가 모음이나 ‘ㄹ’로 끝나면 ‘-’가 없는 형태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가 있는 형태로 실현된다. 어미에 으-탈락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가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오히려 ‘-’가 없는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환경에 따라 ‘-’가 첨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66) ㄱ. 놀랑 먼저 밧더래 감시라.

(너는 먼저 밧으로 가고 있어라.)

ㄴ. 아시영 혼디 먹엄시라.

(아우와 함께 먹고 있어라.)

(66)ㄱ과 ㄴ의 예는 용언의 어간에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가 결합된 후에 연결되는 ᄀ라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66)ㄱ의 ‘감시라’는 가-(용언의 어간)+-암시-(시상 선어말어미)+-라(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되고, (66)ㄴ의 ‘먹엄시라’는 먹-(용언의 어간)+-엄시-(시상 선어말어미)+-라(명령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어미 형태소 중에 진행상 ‘-고 있다’에 대응되는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를 제외하면, (65)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ᄀ라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는 ‘-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시라/-어시라’도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의미를 지닌 시상 선어말어미 ‘-아시-/-어시-’ 형태소를 분리하면 완료상에 결합되는 ᄀ라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소도 진행상의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라’임이 드러난다.

#### 4.2.4. 청유형 어미

화자가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 어미를 ᄀ라체의 청유형 어미라 한다. 이러한 어미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가 있으며,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가 결합되어 ‘-암시자/-엄시자’의 형태로 진행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어휘 자체에 청유형의 의미

---

우세했다. 첨가되는 모음 ‘-’는 매개 모음 또는 조음소라고 불렀다. ‘매개’는 둘을 이어 준다는 의미이고 ‘조음’은 소리를 고른다는 의미로 ‘매개 모음’이나 ‘조음소’는 모두 ‘-’가 첨가되는 것을 전체한 용어들이다.



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글라’를 활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 자신과 함께 행동하기를 권유하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67) ㄱ. 우릴랑 먼저 집이 가자.

(우리는 먼저 집에 가자.)

ㄴ. 우릴랑 밥 먼저 먹엄시자.

(우리는 밥을 먼저 먹고 있자.)

ㄷ. 이젤랑 혼디 글라.

(이제는 함께 가자.)

(67) ㄱ~ㄷ의 예는 ᄒ라체에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67) ㄱ의 ‘가자’는 가-(용언의 어간)+-자(청유형 어미)로 분석되고, (67) ㄴ의 ‘먹엄시자’는 먹-(용언의 어간)+-엄시-(시상 선어말어미)+-자(청유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7) ㄱ과 ㄴ에서 분석된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는 ‘-자’로 표준어의 청유형 어미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7) ㄷ의 ‘글라’는 글-(용언의 어간)+-라(명령형 어미)로 분석된다. (67) ㄷ에서 분석한 ‘글라’의 ‘-라’를 명령형 어미로 분석해 놓고 청유형 문장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글라’에 내포된 단어의 특수성 때문이다. ‘글라’는 기본형 ‘글다’<sup>30)</sup>의 활용형으로 청자가 화자와 함께 움직이기를 권유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청유형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미 ‘-라’에는 4.2.3.항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ᄒ라체 명령형 종결 어미의 형태로써 명령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67) ㄷ의 ‘글라’는 청유와 명령의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글라’ 대신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글자’를 쓰지는 않는다. 즉, (67) ㄷ은 청유형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결어미 ‘-라’를 청유형 어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ᄒ라체 청유문

30) 송상조(2008:88~89)에서는 ‘글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글다는 ‘가다’나 ‘걷다’와 같은 뜻의 말을 피임말로 만들 때 쓰는 모자란 움직임에 해당된다. 이 말 속에는 말할이가 함께 움직임의 뜻이 함의되어서 ‘함께 함’의 뜻인 ‘혼디’는 있거나 없거나 같은 뜻이 된다. ‘혼디 글라, 혼디 글어’에서는 ‘함께 가자’의 뜻으로 ‘혼디’가 없어도 같은 뜻이며 ‘혼저 글라, 제게 글라, 혼저 글어, 제게 글어’ 따위는 ‘혼디’가 없어도 ‘함께, 서둘러, 빨리 가자’의 뜻으로 쓰인다. ‘걷다’와는 뜻으로 비슷하게 보이나 꼭 말할이가 함께 하지는 않으며 이때의 ‘걷다’는 피임이라기보다 시킴으로 쓰인 것이다.

에 쓰이는 종결어미 형태는 ‘-자’임을 알 수 있다.

#### 4.3. 후여체의 어미 양상

제주 방언의 후여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우-/수-, -하-/읍-’이나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지 않고 쓰이는 반말체 어미로써 [-존대]자질을 지니며, [-격식성]자질이 부여된 상대높임 등급 체계이다. 이 후여체는 후여체 문장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면 [+존대]자질을 지닌 후여마씀체가 성립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문장 종결법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가 사용된다.

##### 4.3.1. 평서형 어미

제주 방언의 후여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 [-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격의없이 드러내기 위한 평서형 어미로 ‘(으)네, -아/-어, -ㄴ계, -안계/-언계, -란계, -안걸/-언걸, -크라, -메, -주’ 등을 사용한다.

(68) ㄱ. 영희 지레가 질 족으네.

(영희의 키가 제일 작네.)

ㄴ. 가인 밥 잘 먹어.

(그 아이는 밥을 잘 먹어.)

ㄷ. 그거 느네 집이 쉼계.

(그것은 너희 집의 소네.)

(68)ㄱ~ㄷ의 예는 직설법에 나타나는 후여체 종결어미 형태로 (68)ㄱ의 ‘족으네’는 족-(용언의 어간)+-(으)네(평서형 어미)로, (68)ㄴ의 ‘먹어’는 먹-(용언의 어간)+-어(평서형 어미)로 분석된다. (68)ㄷ의 ‘셈계’는 체언의 ‘셈’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췌(체언)+-ㄴ게(평서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8)ㄱ ‘족으네’의 ‘으’는 매개 모음으로 일종의 자음 충돌을 막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매개 모음 삽입 현상은 ‘굴으네(갈네), 넘으네(눅네), 먹으네(먹네), 줍으네(줍네)’와 같이 제주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68)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 종결어미 형태소를 정리하면 ‘-(으)네, -어, -ㄴ게’가 하여체 직설법에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69)ㄱ. 그 사람덜도 밥 잘 먹언게.

(그 사람들도 밥을 잘 먹던데.)

ㄴ. 가인 밧디서 오란게.

(그 아이는 밧에서 오던데.)

ㄷ. 그거 느네 집이 췌란게.

(그것은 너의 집의 소이던데.)

ㄹ. 철수도 밥 잘 먹언걸.

(철수도 밥을 잘 먹더군.)

(69)ㄱ~ㄹ의 예는 회상법에 쓰이는 하여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69)ㄱ의 ‘먹언게’는 먹-(용언의 어간)+-어-(과거회상 선어말어미)+-ㄴ게(평서형 어미)로 분석되며, (69)ㄴ의 ‘오란게’는 오-(용언의 어간)+-아-(과거회상 선어말어미)+-ㄴ게(평서형 어미)로, (69)ㄷ의 ‘췌란게’는 체언인 ‘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췌(체언)+-아-(과거회상 선어말어미)+-ㄴ게(평서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69)ㄹ의 ‘먹언걸’은 먹-(용언의 어간)+-어-(과거회상 선어말어미)+-ㄴ걸(평서형 어미)로 분석된다.

(69)ㄴ의 ‘오란게’와 (69)ㄷ ‘췌란게’의 ‘-란게’를 현평호(1985:109)에서는 회상법 선어말어미 ‘-란-’과 평서법어미 ‘-게’로 분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란게’의 형태가 ‘오다, 새다, 이다’와 같이 특정한 어휘나 체언 뒤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되는 어휘에서 ‘-안게’가 ㄹ첨가의 현상<sup>31)</sup>으로 ‘-란게’의 형태로 문법화

31) 정승철(2013:174)에서 ‘셀다(새다), 아이셀다(아이 서다), 지붕일다(지붕 이다)’ 등은 역사적으로 접사 ‘-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란게’의 기저형을 ‘-안게’로 설정하고 형태소를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아-’와 평서형 어미 ‘-ㄴ게’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란게’는 특정한 환경에서 ‘-안게’가 ‘-란게’로 형태를 바꾸며, 회상법의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게’의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69)ㄹ ‘떡언걸’의 평서형 종결어미 ‘-ㄴ걸’은 (69)ㄱ~ㄷ에서 분석된 평서형 어미 ‘-ㄴ게’와 미세한 의미 차이를 지닌다. (69)ㄱ~ㄷ의 ‘-ㄴ게’와 (69)ㄹ의 ‘-ㄴ걸’은 화자의 생각을 단순하게 진술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69)ㄱ~ㄷ의 ‘-ㄴ게’는 발화된 어떤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69)ㄹ의 ‘-ㄴ걸’은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상으로 (69)ㄱ~ㄷ에서 분석한 형태소에서 회상법에 연결되어 쓰이는 ᄒ여체 종결어미 형태는 ‘-ㄴ게’와 ‘-ㄴ걸’임을 알 수 있다.

(70)ㄱ. 그 사람이 일 잘 ᄒ크라.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겠네.)

ㄴ. 날은 비 오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

(70)ㄱ과 ㄴ의 예는 추측법에 쓰이는 ᄒ여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70)ㄱ의 ‘ᄒ크라’는 ᄒ-(용언의 어간)+-크-(추측형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70)ㄴ의 ‘오메’는 오-(용언의 어간)+-메(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70)ㄱ의 ‘ᄒ크라’를 앞서 살폈던 (58)ㄱ의 ᄒ키여와 외형적 형태를 비교해 보면, (70)ㄱ의 ‘ᄒ크라’가 ᄒ라체로 (58)ㄱ의 ᄒ키여가 ᄒ여체로 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ᄒ여체’는 높임 보조사 ‘-마씀’을 ‘ᄒ여체’ 뒤에 결합시키면 ‘ᄒ여마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ᄒ라체’는 ‘-마씀’을 ‘ᄒ라체’ 뒤에 결합하면 \*ᄒ라마씀이 되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70)ㄱ의 ‘ᄒ크라’에 ‘-마씀’을 결합하면 ‘ᄒ크라마씀’으로 자연스럽게 발화되지만 (58)ㄱ의 ‘ᄒ키여’에 ‘-마씀’을 결합하면 \*ᄒ키여마씀으로

ㄹ’의 첨가와 관련되며 ‘오다(來)’는 모음 어미 앞에서 ‘올-’로 교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문법적 표현이 되므로 (70)ㄱ의 ‘흐크라’는 흐여체로 (58)ㄱ의 ‘흐키여’는 흐라체로 분류하는 것이다.

(70)ㄴ에서 분석한 형태소 ‘-메’에 대하여 현평효(1985:109)에서는 ‘먹으메, 보메, 가메’와 같이 어간에 연결되기도 하고, ‘먹엄시메, 보아시메’와 같이 동작상의 형태에 접미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로 보아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하여 지정하여 언술하는 것이므로 ‘-메’를 직설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70)ㄴ에서 발화된 문장을 살펴보면 ‘오메’는 미래의 의미를 지닌 ‘내일’과 호응되는 것으로 보아 미래 추측의 의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뿐만 아니라 ‘먹엄시메’는 현재의 추측, ‘보아시메’는 과거의 추측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메’를 직설법이 아닌 추측법의 의미를 지닌 평서형 종결어미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70)ㄱ과 ㄴ에서 분석한 형태소 중에서 흐여체에 쓰이는 추측법 종결어미 형태는 ‘-라’와 ‘-메’ 임을 알 수 있다.

(71)ㄱ. 이젤랑 집이 가크라.

(이제는 집에 가겠어.)

ㄴ. 이결랑 나가 먹주.

(이것은 내가 먹겠어.)

ㄷ. 이결랑 나가 먹젠.

(이것은 내가 먹겠어.)

(71)ㄱ과 ㄴ의 예는 의도법에 쓰이는 흐여체 종결어미 형태이다. (71)ㄱ의 ‘가크라’는 가-(용언의 어간)+-크-(의도법 선어말어미)+-라(평서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71)ㄴ의 ‘먹주’는 먹-(용언의 어간)+-지-(의도법 선어말어미)+-우(평서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1)ㄷ의 ‘먹젠’은 먹-(용언의 어간)+-지-(의도법 선어말어미)+-엔(평서형 어미)로 분석된다.

(71)ㄴ에서 분석된 어미 ‘-주<sup>32)</sup>’의 생성과정을 추정해 보면, ‘-지우’가 모음 축약

32) 현평효(1985:110)에서는 ‘-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주’는 제주 방언에서 특이한 형태로 이것은 흐라체에서의 ‘-저’와 대응되는 흐여체 어형으로서 이것을 의도법의 ‘-즈-’과 평서법 어미 ‘-우’로 분석한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주’가 모음 축약과 반모음 ‘y’가 탈락하는 음운 현상을 거친 것

으로 ‘-쥬’가 되고 이는 다시 경구개음인 ‘ㄷ, ㅌ, ㅈ’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을 거쳐 ‘-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흐라체 의도법 어미 형태인 ‘-저’와 유사한 생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71)ㄷ의 ‘-젠’도 ‘-주’와 ‘-저’의 유사한 형성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71)ㄱ~ㄷ에서 분석된 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을 분리하면, 의도법에 쓰이는 흐여체 어미 ‘-크라’와 ‘-주, -젠’이 남게 되고, 이것에서 다시 의도법 선어말어미 ‘-크-’와 ‘-지-’를 분리하면 ‘-라, -우, -엔’이 남게 된다. 즉, 제주 방언의 흐라체에 쓰이는 의도법 종결어미 형태는 ‘-라, -우, -엔’임을 알 수 있다.

(68)~(71)에서 논의된 흐여체의 평서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1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6> 평서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흐여체	-(으)네 -아/-어 -ㄴ게	-안게/-언게 -란게 -안걸/-언걸	-크라 -메	-크라 -주 -젠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흐여체의 평서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류하면 직설법에 ‘-(으)네, -아/-어, -ㄴ게’가, 회상법에 ‘-안게/-언게, -란게, -안걸/-언걸’이, 추측법에 ‘-크라, -메’, 의도법에 ‘-크라, -주, -젠’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어미를 분리하면 흐여체의 평서형 종결어미의 형태로 직설법에 ‘-(으)네, -아/-어, -ㄴ게’, 회상법에 ‘-ㄴ게, -ㄴ걸’, 추측법에 ‘-라, -메’, 의도법에 ‘-라, -우, -엔’이 있음이 드러난다.

#### 4.3.2. 의문형 어미

제주 방언의 흐여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 [-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로 보아 ‘-지+-우’로 분석하였다.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묻거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형 어미로 ‘-는가, -는고, -아/-어, -던가, -던고, -안가/-언가, -안고/-언고, -란가, -란고, -큰가, -큰고, -(으)카, -(으)코, -크라, -젠’ 등 다양한 형태가 쓰인다. 이렇게 제시된 한국어 의문형 어미를 살펴보면 크게 ‘-가’형 어미 형태와 ‘-고’형 어미 형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와 ‘-고’의 대립 형태는 중세국어의 의문문 표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가’형,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고’형이 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 방언에 사용되고 있는 의문형 어미 ‘-가’와 ‘-고’는 중세 국어의 의문문 형태에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72) ㄱ. 가인 그디서 뭐 햏염신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ㄴ. 가인 그디서 공부햏염신가?

(그 아이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72)ㄱ은 의문사 ‘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어미 ‘-고’가 쓰였고, (72)ㄴ은 의문사 없이 쓰여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어미 ‘-가’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73) ㄱ. 오늘랑 어드레 강 일 햏코?

(오늘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

ㄴ. 철수네 밧더레 강 일 햏카?

(철수네 밧으로 가서 일을 할까?)

(73)ㄱ의 ‘햏코’는 햏-(용언의 어간)+-코-(의도법 선어말어미)+-오(의문형 어미)로, (73)ㄴ의 ‘햏카’는 햏-(용언의 어간)+-코-(의도법 선어말어미)+-아(의문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형태소 중에 의문형 종결어미를 분리하면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오’와 ‘-아’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3)

ㄱ의 문장은 ‘어디’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종결어미 ‘-오’가 쓰였으며, (73)ㄴ의 문장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종결어미 ‘-아’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72)와 (73)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제주 방언의 호여체 의문문 표현에서 의문형 어미 ‘-고/-오’가 쓰이면 설명 의문문에, ‘-가/-아’가 쓰이면 판정 의문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이는 중세국어의 의문문에서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오’의 형태가, 판정 의문문은 ‘-가/-아’의 형태가 쓰였다는 것과는 일치하는 것이다.

(74) ㄱ. 누게가 질 잘 먹는고?

(누구가 제일 잘 먹는가?)

ㄴ. 철수가 질 잘 먹는가?

(철수가 제일 잘 먹는가?)

ㄷ. 누게가 질 잘 먹어?

(누구가 제일 잘 먹어?)

(74)ㄱ~ㄷ의 예는 직설법에 쓰이는 호여체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74)ㄱ의 ‘먹는고’는 먹-(용언의 어간)+-는-(직설법 선어말어미)+-고(의문형 어미)로, (74)ㄴ의 ‘먹는가’는 먹-(용언의 어간)+-는-(직설법 선어말어미)+-가(의문형 어미)로 분석된다. (74)ㄷ의 ‘먹어’는 먹-(용언의 어간)+-어(의문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4)ㄱ~ㄷ에서 분석한 형태소에서 용언의 어간을 분리하면 어미 형태소 ‘-는고, -는가, -어’가 남게된다. 여기에서 직설법 의미를 지닌 형태소 ‘-는-’을 분리하면 결국 의문형 종결어미로 ‘-고, -가, -어’가 남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3) 정승철(2013:181)에서도 제주 방언의 의문문 표현에 대하여 제주 방언의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형태나 기능의 면에서 매우 독특한 면모를 드러내는데,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과 해당 질문에 대해 긍정인지 부정인지의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을 만들 때 형태가 다른 종결어미를 쓰며, 제주 방언의 ‘호여’체 종결어미 ‘-(으)고’와 ‘(으)가’가 바로 이러한 대답을 보여주는 어미라고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추측법과 회상법에 쓰이는 ‘-코’와 ‘-카’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설명 의문문에 ‘-오’형이, 판정 의문문에 ‘-아’형의 종결 어미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고(설명 의문문)과 -가(판정의문문)’만이 아니라 ‘-오(설명 의문문)과 -아(판정의문문)’도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변별하여 쓰이는 것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는 의문사와 함께 쓰여 설명 의문문으로, ‘-가’는 의문사 없이 쓰여 판정 의문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종결어미 ‘-어’는 문장 끝의 수행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으로 쓰이는데, 의문형 어미는 문장 끝이 상승조 억양으로 발화된다.

(75) ㄱ. 가인 밧더레 가던가?

(그 아이는 밧으로 가던가?)

ㄴ. 가인 어느 밧더레 가던고?

(그 아이는 어느 밧으로 가던가?)

ㄷ. 그 사름덜도 밥 잘 먹언가?

(그 사름들도 밥을 잘 먹던가?)

ㄹ. 어느 사름덜이 밥 잘 먹언고?

(어느 사름들이 밥 잘 먹던가?)

(75) ㄱ~ㄹ의 예는 회상법에 쓰이는 호여체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75) ㄱ의 ‘가던가’는 가-(용언의 어간)+-더-(회상법 선어말어미)+-ㄴ가(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며, (75) ㄴ의 ‘가던고’는 가-(용언의 어간)+-더-(회상법 선어말어미)+-ㄴ고(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5) ㄱ과 ㄴ의 종결어미 ‘-ㄴ가’와 ‘-ㄴ고’의 형태가 다른 것은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아’형이,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오’형이 쓰이기 때문이다. 즉, (75) ㄱ은 판정 의문문으로 발화된 반면에 (75) ㄴ은 설명 의문문으로 발화된 것이다. (75) ㄷ의 ‘먹언가’는 먹-(용언의 어간)+-어-(회상법 선어말어미)+-ㄴ가(의문형 종결어미)로, (75) ㄹ의 ‘먹언고’는 먹-(용언의 어간)+-어-(회상법 선어말어미)+-ㄴ고(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5) ㄷ과 ㄹ에서도 (75) ㄱ과 ㄴ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ㄴ가’와 ‘-ㄴ고’의 형태를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6) ㄱ. 가인 밧더레 오란가?

(그 아이는 밧으로 오던가?)

ㄴ. 가인 어느 밧더레 오란고?

(그 아이는 어느 밧으로 오던가?)

(76)ㄱ의 ‘오란가’는 오-(용언의 어간)+-아-(회상법 선어말어미)+-ㄴ가(의문형 어미)로, (76)ㄴ의 ‘오란고’는 오-(용언의 어간)+-아-(회상법 선어말어미)+-ㄴ고(의문형 어미)로 분석된다. (76)ㄱ과 ㄴ의 ‘-란가/-란고’의 -란-은 (69)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오다, 새다(漏), 이다(蓋)’와 같은 특정 어휘나 체언 뒤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는 어휘에서 ‘ㄹ첨가 현상’이 나타나 ‘-안-’에서 ‘-란-’으로 형태 바꿈이 일어난 것이다.

(75)와 (76)에서 분석한 어미 형태소에서 회상법 선어말어미 ‘-더-, -아-/어-’를 분리해 내면 회상법에 쓰이는 ᄒ여체 의문형 종결어미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의미에 따라 각각 ‘-ㄴ가’와 ‘-ㄴ고’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7)ㄱ. 그 사름은 일 잘 ᄒ큰가?

(그 사름은 일을 잘 할까?)

ㄴ. 어느 사름이 일 잘 ᄒ큰고?

(어느 사름이 일을 잘 할까?)

ㄷ. 가인 밥 잘 먹으카?

(그 아이는 밥을 잘 먹을까?)

ㄹ. 누게가 밥 잘 먹으코?

(누구가 밥을 잘 먹을까?)

(77)ㄱ~ㄹ의 예는 ᄒ여체에 쓰이는 추측법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77)ㄱ과 ㄴ의 ‘ᄒ큰가’와 ‘ᄒ큰고’는 ᄒ-(용언의 어간)에 ‘-크-’(추측법 선어말어미)가 결합되고 의문문의 성질에 따라 종결어미 ‘-ㄴ가’(판정 의문문), ‘-ㄴ고’(설명 의문문)과 결합되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77)ㄷ의 ‘먹으카’는 먹-(용언의 어간)+-(으)카-(추측법 선어말어미)+-아(의문형 종결어미)로, (77)ㄹ의 ‘먹으코’는 먹-(용언의 어간)+-(으)코-(추측법 선어말어미)+-오(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되

어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판정 의문문), -오(설명 의문문) 형태로 쓰여 (77) ㄱ과 ㄴ의 종결어미 ‘-ㄴ가, -ㄴ고’의 형태와 다르지만 판정의문문에는 ‘-아’형이, 설명의문문에는 ‘-오’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7) ㄱ~ㄴ에서 분석한 형태소에서 추측법 선어말어미 ‘-크-, -(으)크-’를 분리해내면 추측법에 쓰이는 호여체 의문형 종결어미로 -ㄴ가(판정 의문문), -ㄴ고(설명 의문문), -아(판정 의문문), -오(설명 의문문)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78) ㄱ. 이젤랑 집이 가카?

(이제는 집에 갈까?)

ㄴ. 누게네 집이 가코?

(누구네 집에 갈까?)

ㄷ. 이젤랑 밥 먹크라?

(이제는 밥을 먹을까?)

ㄹ. 이젤랑 밥 먹젠?

(이제는 밥을 먹을까?)

(78) ㄱ~ㄹ의 예는 호여체에 쓰이는 의도법 의문형 어미 형태이다. (78) ㄱ과 ㄴ의 ‘가카’와 ‘가코’는 가-(용언의 어간)에 -크-(의도법 선어말어미)가 결합되고, 각각 종결어미 -아(판정 의문문)과 -오(설명 의문문)이 쓰여 의문문의 문법적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78) ㄷ의 ‘먹크라’는 먹-(용언의 어간)+-크-(의도법 선어말어미)+-라(의문형 어미)로, (78) ㄹ의 ‘먹젠’은 먹-(용언의 어간)+-지-(의도법 선어말어미)+-엔(의문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8) ㄷ과 ㄹ의 ‘-크라’와 ‘-젠’은 (78) ㄱ과 ㄴ의 -카(판정 의문문), -코(설명 의문문)과 다르게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78) ㄱ~ㄹ에서 분석한 어미 형태소에서 의도법 선어말 어미 ‘-(으)크-, -크-, -지-’를 제외하면 의도법에 쓰이는 호여체 의문형 종결어미로 ‘-아(판정 의문문), -오(설명 의문문), -라, -엔’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68)~(78)에서 논의된 호여체의 의문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분

류하면 <표1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7> 의문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호여체	-는가 -는고 -아/-어	-던가 -던고 -안가/-언가 -안고/-언고 -란가 -란고	-큰가 -큰고 -(으)카 -(으)코	-(으)카 -(으)코 -크라 -젠

<표17>에서 제시된 호여체의 의문형 어미 형태를 서법에 따라 재정리하면 직설법에 어미 ‘-는가, -는고, -아/-어’가, 회상법에 ‘-던가, -던고, -안가/-언가, -안고/-언고, -란가, -란고’가, 추측법에 ‘-큰가, -큰고, -(으)카, -(으)코’가, 의도법에 ‘-(으)카, -(으)코, -크라, -젠’이 각각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여기에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 어미를 제외하면, 호여체에 쓰이는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직설법에 ‘-는가, -는고, -아/-어’가, 회상법에 ‘-는가, -는고’가, 추측법에 ‘-는가, -는고, -아, -오’가, 의도법에 ‘-아, -오, -라, -엔’이 쓰임을 알 수 있다.

#### 4.3.3. 명령형 어미

화자가 [-존대], [-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도하는 의미를 지닌 의미를 호여체의 명령형 어미라 한다. 이런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아/-어, -주’가 쓰이며, 시상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형태로는 ‘-암서/-엄서, -아서/-어서’가 사용된다.

(79) ㄱ. 맨도롱홀 때 재기 먹어.

(따뜻할 때에 빨리 먹어.)

ㄴ. 늘랑 먼저 집이 가주.

(너는 먼저 집에 가.)

(79)ㄱ과 ㄴ의 예는 호여체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79)ㄱ의 ‘먹어’는 먹-(용언의 어간)+-어(명령형 어미)로, (79)ㄴ의 ‘가주’는 가-(용언의 어간)+-지-(의도법 선어말어미)+-우(명령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79)ㄱ과 ㄴ의 명령형 어미 ‘-어’와 ‘-우’는 수행억양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어의 비격식체인 ‘해체’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ㄱ. 놀랑 먼저 밧더래 감서.

(너는 먼저 밧으로 가고 있어.)

ㄴ. 아시영 혼디 먹어서.

(동생과 함께 먹어.)

(80)ㄱ과 ㄴ의 예는 용언의 어간에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 -아시-/-어시-’가 결합되고, 명령형 종결어미 ‘-어’가 쓰여 명령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즉, (80)ㄱ의 ‘감서’는 가-(용언의 어간)+-암시-(시상 선어말어미)+-어(명령형 어미)로, (80)ㄴ의 ‘먹어서’는 먹-(용언의 어간)+-어시-(시상 선어말어미)+-어(명령형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80)ㄱ과 ㄴ에서 분석된 명령형 어미 ‘-어’도 (79)에서 분석된 명령형 어미 ‘-어, -우’와 같이 수행 억양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모든 문장 서법에 사용될 수 있다.

이상으로 (79)와 (80)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호여체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는 ‘-아/-어, -우’임이 드러난다.

#### 4.3.4. 청유형 어미

화자가 [-존대], [-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권유

하거나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 어미가 ᄃᆞ여체 청유형 어미이며, 이런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게’가 사용된다. 또한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 -아시-/어시-’와 함께 쓰여 ‘-암시게-/엄시게, -아시게-/어시게’의 형태로 동작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81) ㄱ. 우릴랑 먼저 집이 가게.

(우리는 먼저 집에 가.)

ㄴ. 우릴랑 먼저 먹엄시게./먹어시게.

(우리는 먼저 먹고 있어.)

(81)ㄱ과 ㄴ의 예는 ᄃᆞ여체에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81)ㄱ의 ‘가게’는 가-(용언의 어간)+-게(청유형 어미)로, (81)ㄴ의 ‘먹엄시게’는 먹-(용어의 어간)+-엄시-(시상 선어말어미)+-게(청유형 어미)로 분석된다. (81)ㄴ의 ‘-엄시-’는 진행상의 의미를 지니는 ‘-고 있다’에 대응된다. 반면에 ‘-아시-/어시-’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의미를 지닌 완료상 ‘-아 있다’에 대응된다.

(81)ㄱ과 ㄴ에서 분석된 형태소를 살펴보면 ᄃᆞ여체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로 ‘-게’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ᄃᆞ여체에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의 ‘-게’는 표준어에서 예사낫춤과 격식을 갖추어 발화되는 ‘하게’체와는 다른 문법적 성질을 지닌다. 제주 방언의 ᄃᆞ여체의 ‘-게’는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니며 청유형 문장에 사용되지만 표준어 ‘하게체’의 ‘-게’는 [-존대], [+격식성]자질을 지니며 명령형 문장에 사용된다.

#### 4.4. ᄃᆞ여마씀체의 어미 양상

제주 방언의 ‘ᄃᆞ여마씀체’는 ‘ᄃᆞ여체’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존대]자질이 부여된 상대 높임 등급체계이다. 또한 ‘ᄃᆞ여마씀체’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수-, -뵤-/읍-’이 쓰여 [+존대]자질이 부여된 ‘ᄃᆞ서체’보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격식성]자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여마씀체는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의 발화 의도를 드러내는 높임 등급체계라 할 수 있다.

‘호여마씀체’의 종결어미 형태는 ‘호여마씀체’가 ‘호여체’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4.3.절에서 논의했던 호여체의 종결어미의 양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4.4.절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호여체’ 종결어미 양상을 요약·정리한 후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된 형태를 밝히는 것으로 ‘호여마씀체’의 종결어미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4.4.1. 평서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격의 없이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종결어미를 사용하는데, 이를 호여마씀체의 평서형 어미라고 한다.

<표18> 평서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호여마씀체	-(으)네마씀 -아마씀/-어마씀 -ㄴ게마씀	-안게마씀/-언게마씀 -란게마씀 -안걸마씀/-언걸마씀	-크라마씀 -메마씀	-크라마씀 -주마씀 -젠마씀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여체 평서형 어미 형태인 ‘-(으)네, -아/-어, -ㄴ게, -안게/-언게, -란게, -안걸/-언걸, -크라, -메, -주, -젠’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호여마씀체가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준어에서 비격식체인 ‘해체’에 높임 보조사 ‘-요’가 결합되면서 ‘해요체’가 성립되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어 ‘해요체’와 같이 ‘호여마씀체’가 [+존대][-격식성]자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18>에서 높임 보조사 ‘-마씀’을 분리해내고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어

미를 제외하면 ᄇ여마씀체의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직설법에 ‘-(으)네, -아/-어, -ㄴ게’, 회상법에 ‘-ㄴ게, -ㄴ걸’, 추측법에 ‘-라, -메’, 의도법에 ‘-라, -우, -엔’ 등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4.2. 의문형 어미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묻거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어미를 ᄇ여마씀체의 의문형 어미라고 한다.

<표19> 의문형 어미 형태

서법 존대등급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
ᄇ여마씀체	-는가마씀? -는가마씀? -는고마씀? -아마씀/-어마씀?	-던가마씀? -던고마씀? -안가마씀/-언가마씀? -안고마씀/-언고마씀? -란가마씀? -란고마씀?	-큰가마씀? -큰고마씀? -(으)카마씀? -(으)코마씀?	-(으)카마씀? -(으)코마씀? -크라마씀? -젠마씀?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ᄇ여체의 의문형 어미 형태인 ‘-는가, -는고, -아/-어, -던가, -던고, -안가/-언가, -안고/-언고, -란가, -란고, -큰가, 큰고, -(으)카, -(으)코, -크라, -젠’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ᄇ여마씀체’의 의문문 형태가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9>에서 높임 보조사 ‘-마씀’을 분리하고 서법의 의미가 부여된 선어말어미를 제외하면 ᄇ여마씀체의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 직설법에 ‘-ㄴ가, ㄴ고, -아, -오’가, 회상법에 ‘-ㄴ가, ㄴ고’가, 추측법에 ‘-ㄴ가, ㄴ고, -아, -오’가, 의도법에 ‘-아, -오, -라, -엔’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4.3. 명령형 어미

화자가 [+존대][-격식성]자질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도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어미가 ㅎ여마씀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이런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아마씀/-어마씀, -주마씀’이 쓰이며, 시상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암서마씀/-엄서마씀, -아서마씀/-어서마씀’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ㅎ여마씀체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의 형태를 밝히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어미 형태소에서 높임 보조사 ‘-마씀’과 의도법 선어말어미 ‘-지-’,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 -아시-/-어시-’를 분리해 내면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소인 ‘-아/-어, -우’가 남게 된다. 즉, ㅎ여마씀체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로 ‘-아/-어, -우’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4.4. 청유형 어미

화자가 [+존대][-격식성]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 어미가 ㅎ여마씀체 청유형 어미이다. 이런 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게마씀’이 사용되며,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게/-엄시게, -아시게/-어시게’에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어 ‘-암시게마씀/-엄시게마씀, -아시게마씀/-어시게마씀’이 쓰이기도 한다.

ㅎ여마씀체에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의 형태를 밝히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어미 형태소에서 높임 보조사 ‘-마씀’과 시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 -아시-/-어시-’를 제외하면 청유형 종결어미 형태소인 ‘-게’가 남게 된다. 즉, ㅎ여마씀체에 쓰이는 청유형 종결어미의 형태로 ‘-게’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 방언이 한국어의 하위 언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세 국어가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쳐 제주 방언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제주 방언에 나타난 상대 높임법에 대한 특징적인 점을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 형태를 밝히고 상대 높임법 등급 체계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보완하여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 등급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를 재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미 형태소의 본래 모습을 규명하였다. 본론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법의 대표적 형태로 ‘-우-/수-, -ㅂ-/읍-’과 ‘-마썸’이 사용됨을 밝히고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수-’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반드시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 결합 시에만 결합할 수 있으며 ‘-우-’와 ‘-수-’의 바로 앞 음운 환경이 모음으로 끝났느냐 혹은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임을 밝혔다. 또한 ‘-우-’와 ‘-수-’가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만 결합되고 동사의 어간에는 결합될 수 없는 이유로 ‘-우-’와 ‘-수-’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과 ‘-습-’이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으이-’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며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와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우-’와 ‘-수-’가 의지·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나 시상 선어말어미 ‘-암-/엄-/염-, -앗-/엇-/엇-’과 함께 쓰이면 이런 제약성이 해소됨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ㅂ-/읍-’은 ‘-우-/수-’와 다르게 동사나 형용사에 제약 없이 결합되는데 그 이유로 ‘-ㅂ-/읍-’은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습-) 다음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와 과거회상 선어말어미 ‘-더-’와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수-’와 ‘-ㅂ-/읍-’으로 청자에 대한 존대의 의향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마썸’은 종결어미 뒤나 체언, 부사어, 연결어미 다음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드러내는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높임 보조사로 ‘-양, -예’의 쓰임을 살펴보고 ‘-마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마씀’은 표준어 ‘요’에 대응되는 높임 보조사로, ‘-양, -예’는 감탄사와 높임 보조사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의 대표적 형태로 ‘-가, -까, -과, -꽂’를 제시하여 이러한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가 중세국어 ‘-느닛가, -느니잇가’의 ‘스’의 영향 관계에 따라 ‘-가’와 ‘-까’의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존대]자질이 부여된 제주 방언의 의문형 종결어미 기본 형태를 ‘-가’와 ‘-까’로 삼고 ‘-꽂’는 높임의 의도가 부여된 의문형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여기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밝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식성]자질을 활용하여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를 재설정하였다.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존대]자질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우-/수-, -ㅁ-/읍-’과 높임 보조사 ‘-마씀’의 사용 여부에 따라 [+존대]와 [-존대]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가 있지만 [격식성]자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표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에서 [+존대][-격식성]자질을 지닌 높임 보조사 ‘요’가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마씀’의 문법적 기능과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격식성]여부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방언의 상대 높임 등급 체계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수-/우-, -ㅁ-/읍-’이 쓰이면 [+존대][+격식성]을 지닌 흡서체,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되면 [+존대][-격식성]을 지닌 혀여마씀체, 존대 표지가 없고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될 수 없으면 [-존대][+격식성]자질을 지닌 혀라체, 존대 표지가 없고 높임 보조사 ‘마씀’이 결합 가능하면 [-존대][-격식성]을 지닌 혀여체의 4등급 체계로 분류해야 함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3.2.절에서 분류한 상대 높임 등급 체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어미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흡서체에 사용되는 평서형 종결어미 ‘-게, -께, -다’가 쓰이며 이것은 그 앞에 나타나는 형태소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논의하였

다. 또한 흡서체 의문형 종결어미로 ‘-가, -까’가 사용되는데 평서형 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가, -까’도 형태론적 이형태로 논의하였고 명령형 종결어미 형태로 ‘-서’가 사용됨을 밝혔다. 특히 흡서체 청유형 어미의 형태로 ‘-읍주, -ㅂ주’가 쓰인다는 기존의 견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읍주, -ㅂ주’에 쓰인 ‘-읍-, -ㅂ-’는 [+존대]자질이 약화되면서 높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흡서체로 분류한 기존의 견해를 재조정하여 ‘-읍주, -ㅂ주’를 표준어 하계체 높임 등급 정도로 분류하였다. ‘-읍주, -ㅂ주’에 [+존대]자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마씀’을 결합하여 ‘-읍주마씀, -ㅂ주마씀’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흡서체의 청유형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흐라체에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직설법에 연결되는 종결어미 ‘-네, -다, -아’가, 회상법에 ‘-라’가, 추측법과 의도법에 ‘-어’가 쓰임을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종결어미 ‘-네’를 직설법의 ‘-니’와 종결어미 ‘-에’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하던 기존의 견해를 보완하여 ‘-네’는 용언의 어간에 단독으로 결합되지 않고 직설법 형태소 ‘-느-’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네’를 단독 형태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추측법에 쓰이는 어미 ‘-키여’를 추측법의 ‘-ㄱ-’와 종결어미 ‘-여’로 분석한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여 모음 충돌 회피 현상으로 ‘ㅣ’모음 뒤에, ‘-어’가 ‘-여’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여기에서는 추측법 종결어미 형태를 ‘-여’가 아니라 ‘-어’로 설정하였다. 흐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는 직설법에 ‘-냐, -네, -아’가, 회상법에 ‘-냐, -네’가, 추측법에 ‘-냐, -니’가, 의도법에 ‘-디아(다), -티아(타), -레, -디, -티’가 쓰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의도법 종결어미 ‘-디아, -티아’는 음운의 축약 현상으로 ‘-다, -타’로 나타나기도 하며 ‘-티아’는 ‘-디아’의 음운의 변화 과정을 겪어 나타난 것으로 규명하였다. ‘-티아’ 형태는 반드시 된소리 발음이 가능한 음운 환경인 관형사형 ‘-ㄹ’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ㄹ디아’가 된소리 현상과 격음화 현상을 거쳐 ‘-ㄹ티아’로 형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디아’를 기저형으로, ‘-티아’는 ‘-디아’의 표면형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ㄹ디아, -ㄹ티아’에서 ‘-아’가 탈락된 형태인 ‘-ㄹ디, -ㄹ티’는 판정 의문문에는 쓰일 수 없고 설명 의문문에만 쓰인다는 문법적 특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흐라체 명령형 종결어미의 형태로 ‘-(으)라’가 사용되는데, 표준어에서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사용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제주 방언의 흐라체에 나타나는 명

령형 어미 ‘-라/-으라’는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호여체의 평서형 종결어미의 형태로 직설법에 ‘-(으)네, -아/-어, -ㄴ게’, 회상법에 ‘-ㄴ게, -ㄴ걸’, 추측법에 ‘-라, -메’, 의도법에 ‘-라, -우, -엔’이 쓰인다는 것을 밝혔으며,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로는 직설법에 ‘-ㄴ가, -ㄴ고, -아/-오’가, 회상법에 ‘-ㄴ가, -ㄴ고’가, 추측법에 ‘-ㄴ고, -ㄴ고, -아, -오’가, 의도법에 ‘-아, -오, -라, -엔’이 사용됨을 살펴 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 방언의 호여체 의문형 어미로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아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오’가 쓰인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의문문에서 판정 의문문은 ‘-가/-아’ 형태가, 설명 의문문은 ‘-고/-오’ 형태가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 방언에 사용되는 호여체 의문형 종결어미는 중세 국어의 의문형 어미 형태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제주 방언의 호여체 명령형 종결어미로 ‘-아/-어, -우’가 쓰이며, 청유형 종결어미로는 ‘-게’가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호여마춤체의 종결어미 형태는 ‘호여마춤체’가 ‘호여체’에 높임 보조사 ‘마춤’이 결합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호여체의 종결어미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것은 표준어에서 비격식체인 ‘해체’에 높임 보조사 ‘요’가 결합되어 ‘해요체’가 성립되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 <참고문헌>

- 강영봉(2001), 『제주의 언어 (1)·(2)』, 제주문화 총서⑤·⑥, 도서출판 제주문화.  
—— (2013), 『2013년도 제주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연락.  
고동호·송상조·오창명·문순덕·오승훈(2015), 『제웃말의 이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학총서1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고영근(2015),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고영진(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 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호, 한글학회, 7~43쪽.  
권재선(1989), 『간추린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 연구선서10, 제주대학교 출판부.  
김성규(1991),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음운(1)』, 국어학강좌4, 태학사, 295~  
319쪽.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도서출판 월인.  
김지홍(2014),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도서출판 경진.  
남광우(2015),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남기심(1991),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형태』, 국어학강좌3, 태학사,  
45~57쪽.  
남기심·고영근(2016), 『국어 표준 문법론』 제4판, 박이정.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2014), 『제주 방언의 그 맛과 멋』, 도서출판 보고서.  
박용후(1988), 『제주 방언 연구 고찰편』, 과학사.  
박준범(2014), 『형태론과 어휘』, 도서출판 지북스.  
서상준(1996), 『현대국어의 상대 높임법』, 전남대학교출판부.  
서태룡(1991), 「정동사 어미의 형태론」 『형태』, 국어학강좌3, 태학사, 59~117쪽.  
송상조(2008),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우창현(1992), 「제주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연구」, 한국어 연구 제24호, 1~70쪽  
이강식(1989), 「제주도 방언의 존대 의문법 고찰」 『청람어문교육』 2권, 청람어문교육학

회, 181~207쪽

- 이기문(2015), 『국어학 개설』, 태학사.
- 이승녕(1978), 『제주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연구선서5, 탑출판사.
- 이승희(2008), 『국어 청자 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국어학 총서59, 태학사.
- 이익섭(1998), 『방언학』,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13, (주)민음사.
-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 문화사.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석학人文강좌58, 세창출판사.
- 한동완(2002), 「제주 방언 청자 경어법의 형태원리」, 어문연구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1쪽.
- 허웅(1986), 『국어 음운학』, 샘 문화사.
- 현평효(1977),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국어국문학74, 국어국문학회, 1~36쪽.
-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1991),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표준어 존대법과 비교하여」, 새국어생활 제1권 제3호, 83~98쪽.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도서출판 각.
- (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 센터 총서②, 도서출판 각.
- 황문환(2003), 『16, 17세기 언간의 상대 경어법』, 국어학총서35, 태학사.
- 황화상(2011), 『현대국어 형태론』,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 Study on the honorifics in Jeju Dialect

- Focusing on the form and rank of the honorifics

Go Maenghun

Many linguist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honorifics in Jeju dialect for its uniquely different linguistic features from other dialects. However, despite of their efforts, they have not clarified the universally and logically accepted linguistic system of Jeju dialect.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presumably it has been difficult to identify the tru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 whose relationship with other general linguistic theories of Korean language has been ironically neglected as the particularity of Jeju dialect was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specific aspects of Jeju dialect and tru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 by examining how relevant Jeju dialect is to the general features appearing in Korean, given that Jeju dialect is subclass of Korean. For this purpose, based on a diachronic study on how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had been changed to influence Jeju dialect, I have identified the original form of the grammatical morpheme in Jeju dialect by examining, through what phonological process, grammatical morphemes of Jeju dialect have been projected into the present form. In addition, I analyzed grammatical morphemes as many as possible when grammatical qualities were found in any specific word ending in order to examine the pattern in word ending by the rank of honorifics in the Jeju dialect which has been formulated in different forms by termination in a sentence.

Chapter 2 looks at '-u / -su-', '-b- / -eup-' and '-mahsseum' as representative forms of honorifics in the Jeju dialect. '-u / -su-', the pre-final endings of honorifics in Jeju dialect can be integrated directly into not verb stem but adjective stem or predicative affix 'be'. Either '-u-' or '-su-' is accordingly selected as phonologically two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whether the phoneme immediately before '-u-' / '-su-' ends with a vowel or consonant. The reason why '-u / -su-' are integrated into only adjective stem or predicative postposition, not verb stem, is arguably that '-u-' and '-su-' are the forms that have appeared in the process of being combined with the respectful pre-final ending '-zahp-' and '-sahp-' and that the present tense pre-final ending '-nah-' and the past recall pre-final ending '-deo-' were not used. Unlike showing respect with '-u- / -su-' and '-b- / -eup-', '-mahsseum' is tagged onto final ending or substantives, adverb and connection ending. Similarly, '-yang, -ye' are assistant affix showing respect. I have found that '-yang, -ye' have been used in response to the standard Korean 'yo' while '-yang, -ye' show exclamation or play a role of assistant affix to express respect. In addition, typical forms of question final endings in Jeju dialect such as '-ga', '-kka', '-gwa',



'-kkwa' have been influenced by 's' in the middle age Korean -nanitga ', ' -naniitga ' which have possibly coexisted in form of '-ga' and '-kka'. Based on such finding- '-ga' and '- kka' as the basic form of the question [+ respect] final ending in the Jeju dialect, '-kkwa' is classified as question final ending with the intention of respect.

Chapter 3 reviews existing articles on the rating system of honorifics in Jeju dialect to clarify and solve problems in classification; in use of the [formality] in standard Korean, the rating system of honorifics in Jeju dialect is reorganized as four classes: '-hahpsoe' form with prefinal ending '-su - / -u-, -b- / - eup-' to express respect; 'hayeomasseum' form in combination with the assistant affix, 'masseum' to express respect and formality; '-hara' form to express respect and formality if no sign of respect and unable to combine with 'masseum'; and '-hahyeo' form to express respect and formality if no sign of respect and able to combine with 'masseum'.

Chapter 4 discusses the declarative final endings '-ge, -kke, and -da', all of which are used in '-hahpsoe' form and a morpheme appearing before such endings determines which is followed. Likewise, the question final ending '-ga, -ka' are also discussed as morphologically different type, and '-seo' has been used in the form of imperative final ending. Particularly, against the existing views that '- eupjoo, - bjoo -' are used in the form of 'hahpseo' propositive ending, '- eupjoo, -bjoo' are reclassified as hahge form to show high respect in standard Korean as [+respect] function of '- eup, -b-' used in '- eupjoo, -bjoo' has been weakened to be diminished. In order to give the qualities of [+respect], it is concluded that the 'hahpseo' propositive ending does not exist as '- masseum' needs to be combined to express as ' - eupjoomasseum, -bjoomasseum'. I have found that the final endings '- nye, - da, - ah' connected to the indicative mood are used in the declarative ending '-hara' form, '-ra' in the recall mood and '-eo' in the presumption and intention mood. In this process, complementing the existing view to interpret the final ending '- nye' as '- ni' of the declarative mood and '-e-' of the final ending, in this paper, I define 'nye' as a single morpheme because '-nye' is solely connected not to the conjugated stem but to the declarative morpheme '- n -'. In addition, Revising the existing view that analyzed the word ending '-kiyeo' used in the presumption as '-k-' in the presumption and final ending '-yeo-', I assume that there must have '-eo' been used as '-yeo' following the vowel 'ee' for avoidance of hiatus, and define '-eo', not '-yeo' as the presumption final ending form. As for the 'hara' question final ending form, '-nya', '-nye', '-ah' is suggested to express the declarative mood, '-nya, -nye' for the recall mood, '-nya' 'ni' for presumption and '-dia(dya), -tia(tya), -re, -di, -ti' for intention mood.

During the course of identifying such findings, ‘-dia’, ‘-tia’, the intention final ending appears as ‘-dya, -tya’ for phonemic contraction or transition of phoneme. Since ‘-tia’ form does not appear except for ‘-r’, a phonetic environment where a fortis is definitely essential, apparently ‘-r dia’ has been changed to ‘-r tia’ through fortis and Korean aspi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rammatical trait, ‘-r di’, ‘-r ti’, the form of ‘-ah’ omitted from ‘-r dia, -r tia’, is not used in dichotomous question but only in the interrogatives. As for ‘hayeo’ form declarative final endings, ‘-(eu)ne’, ‘-ah.-eo’, ‘-n ge’ is used in the indicative mood, ‘-n ge’ -n geol in the recalling mood, ‘-ra’, ‘-me’ in the presumption, ‘-ra,-u, -en’ in the intention method while in the question final ending, -n ga-, -n go, -ah-/oh’ in the indicative mood, and -n ga- ‘n go’ in the recalling mood, -n go,’ ah,’ -oh in presumption,’-ah, -oh, -ra, -en’ in the intention mood. In this process, I examined that as for ‘hayeo’ question ending in Jeju dialect, ‘- ga /- aga’ is used in the dichotomous question, ‘- go/ - oh’ in the interrogatives, based on which, presumably considering the same usages of such endings shown in medieval Korean, ‘hayeo’ question ending used in Jeju dialect is originated from the question ending in medieval Korean. Also for ‘hayeo’ imperative ending in Jeju dialect, ‘-ah / - eo, -u’ are used, and ‘-ge’ for propositive ending. Similarly I have identified that ‘haeyo’ form shows the same principle combining the informal ‘haeche’ form with the assistant affix ‘yo’ in standard Korean to express respect.